

“신공항·산은 이전 속도”… 부산 민심 달래는 尹

尹, 부산시민 격려 간담회 참석
국제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남부 거점도시 인프라 구축 강조
재계 총수와 전통시장 방문 오찬
“부산 발전 적극 참여해 달라”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가 불발된 뒤 처음으로 부산을 찾아 ‘남부권 거점 도시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부산행에 함께한 정부 각 부처 장관, 국회의원, 기업인 등에게는 “서울·부산 양극 체제를 통한 국가 발전 추진이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6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격려 간담회를 열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도를 촘촘하게, 빠짐없이 활용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이 남부권 거점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게 다 똑같이 느린 속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어준 각계 시민 대표와 기업인, 누구보다 엑스포 유치를 뜨겁게 열망했던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를 위한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의 숙원사업이자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부산이 물류와 금융, 디지털과 첨단 산업 거점 도시로 명실상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부평강동시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 총수들과 떡볶이 등 분식을 시식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윤 대통령,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연합뉴스

한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북항 재개발 사업, 글로벌 거점화 추진도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시민 대표,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부산의 남부권 혁신 거점 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가덕도 신공항을 적기에 개항해 남부권 하늘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부산 신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물류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박 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재용 회장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키우려는 대통령의 담대한 비전과 부산 시민의 염원이 함께한다면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부산의 도전에 삼성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전 세계에 부산 정도의 지리적 여건을 가진 도시는 많지 않다”며 “SK도 부산시 발전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부산의 재도와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은 부산 국제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이 부산 국제시장을 방문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시장 내 다양한 업종의 점포들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전시장 부지에 외국 투자 기업을 유치해 엑스포를 유치했을 때보다 부산을 더 발전시키겠다.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부산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부산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산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시장 내 한 분식집에 들른 윤 대통령은 동행한 재계 총수들과 떡볶이, 빈대떡, 비빔면 등을 함께 먹었다. 이어 인근 식당에서 기업인들을 포함한 간담회 참석자들과 오찬도 함께했다. 오찬 메뉴는 부산의 대표 음식 돼지국밥이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요소수 공공물량 유사시 긴급방출”

정부가 요소수 공급 수급 불안이 재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021년과 달리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6일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을 찾아 요소수 재고 및 판매 현황을 점검하면서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계약 물량으로 3개월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미 수입 대체선이 확보돼 있어 기업들도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6면

이날 방문은 최근 중국 당국이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일자,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점검에는 국내 1위 요소수 생산기업인 롯데정밀화학도 함께했다.

장 차관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기업들이 제3국으로 수입 다변화를 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운영 중인 공공 비축 물량도 과감히 확대할 예정”이라며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 수급에 문제가 없으니 국민께서도 안심하고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 참여한 롯데정밀화학 측은 “이번 주베트남산 요소 5000톤을 추가 계약했으며, 중동·동남아 등에 다양한 수입 대체선이 이미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롯데정밀화학 이번 계약분은 기존 3개월분에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 물량이며, 이를 포함하면 현재 3.7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산업용 요소 수입액 중 중국산 비중은 2021년 71%에서 ‘요소수 사태’를 겪으며 2022년 67%로 한때 낮아졌다. 그러나 저렴한 운송비 등 가격 요인이 작용해 중국산 요소의 수입 비중은 작년 다시 90%로 높아졌다. 중국의 수출 제한 등 공급망 교란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수입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제3국으로 도입선을 바꾸지만, 공급이 안정되면 시장 원리에 따라 이익 극대화를 위해 다시 가격 경쟁력이 강한 중국산 도입을 늘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발 요소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만큼 제3국에서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상품들을 들여올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롯데 3세’ 신유열, 전무 승진… 바이오·헬스케어 ‘진두지휘’

2024년 정기 임원인사
‘신사업 발굴’ 미래성장실장 중책
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 겸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유사행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사진> 상무가 전무로 승진해 경영 전면에 나선다. 신 전무는 롯데가 미래 신사업으로 낙점한 바이오사업 경영을 직접 챙기게 됐다. 롯데그룹 신사업을 전담하는 미래성장실장 책무를 맡게 된 신 전무는 바이오, 헬스케어 등을 진두지휘하며 롯데그룹 제2의 성장 동력을 책임진다. 일각에서는 삼성그룹이 반도체에 베푼다는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를 키우겠다고 강조,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바이오 사업 전반을 챙겨온 것과



신 전무가 유사한 행보를 보일지 주목한다. 롯데그룹은 6일 롯데지주 포함 38개 계열사의 이사회를 열고 2024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롯데지주는 글로벌·신사업을 전담하는 미래성장실을 신설했다. 미래성장실장은 신유열 전무가 맡는다.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4면

신 전무는 다양한 글로벌 투자 경험을 토대로 그룹 중장기 비전과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 신사업 확대의 중책을 수행할 예정이다. 롯데 측은 신 전무가 작년부터 롯데스트라티지인베스트먼트(LSI) 대표이사사와 롯데파이낸셜 대표이사 등 투자

계열사 대표직을 역임하며 재무 전문성을 높였고, 롯데케미칼 도쿄지사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데 기여했다고 승진 이유를 설명했다.

신 전무는 롯데그룹 미래성장의 핵심인 롯데바이오로직스의 글로벌전략실장도 겸직하며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을 사업모델로 해 작년 6월 출범, 2030년 글로벌 톱10 CDMO 기업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 전무가 미래성장실장을 맡은 만큼 롯데헬스케어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헬스케어는 롯데지주가 70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9월 건강검진과 유전자 검사 결과 등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을 출시했다.

신 전무가 바이오, 헬스케어 등 롯데그

룹의 신사업을 직접 챙기면서 본격적인 3세 경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를 낙점한 뒤 이재용 당시 부회장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사업 전반을 챙기며 경영 시험대에 올랐다.

한편 롯데그룹은 이번 2024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60대 대표이사 8명 퇴진 등 모두 14명의 계열사 대표이사를 교체했다. 롯데그룹의 화학사업을 5년간 이끈 김교현 롯데그룹화학군 총괄대표 부회장 후임으로 이훈기 롯데지주 ESG경영혁신실장 사장이 부임한다. 이영구 식품군 총괄대표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롯데 측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강화에 방점을 뒀다”며 “임원 규모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주요 경영진이 대폭 교체됐다”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peter@

韓 돈맥 뚫고, 美 군불 때자… 비트코인, 원화거래 달러 추월

장종 1BTC = 6000만원 돌파
미 증권거래위 ETF 승인 청신호
가상자산 랠리 주동력으로 작용
전문가 추가상승 전망 의견 갈려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른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6일 오후 2시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이 5985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한때 6064만2000원까지 상승하며 연중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기도 했다. 최근 비트코인 상승에 원화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비트코인을 거래한 법정 화폐에서 원화가 처음으로 달러를 추월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상승세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4일(현지시간) 자산운용사



블록룩과 비트와이즈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수정 업데이트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운용사와 SEC 간 소통이 잦아지는 것을 두고, ETF 승인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정석문 코빗리서치센터장도 “수정본 자체보다는 수정본이 오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SEC가 ETF 승인을 진지

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 SEC가 현물 ETF를 줄기차게 반려할 때는 이런 쌍방향 소통은 없었다”고 덧붙혔다. 김재원 쟁글 리서치총괄 역시 “자산운용사들과 SEC가 지속적인 논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운용사들이 그간 현물 ETF가 반려된 이유를 수정해 나간다면 높은 확률로 내년 1월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근 비트코인 가

격 상승의 주요 동력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1년간 157% 이상, 한 달 사이 25% 이상 상승한 만큼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분석가들의 시선은 다소 갈리는 모양새다. 정석문 센터장은 각국 정부가 발표하는 거시 지표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시장에서의 유동성은 늘어난 점을 짚으며 추가 상승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전날에도 10년 국채금리가 4.26%에서 4.18%로 내려갔다. 이는 달러 공급(유동성)이 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해 시장 상황 역시 가격 상승에 우호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폭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상승 중 조정은 모든 자산에 공통되는 이야기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ETF 기대감에 대한 선반영과 여전한 고금리 기조로 인해 추가 상승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재원 리서치총괄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

대감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물 ETF 및 기관투자자의 시장 유입이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지만, 기관투자자들이 아니라도 연준이 고금리를 고수하는 동안 위험자산인 가상자산은 가격적으로 탄력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씨씨데이터(CCDData)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비트코인을 거래한 법정 화폐에서 원화가 처음으로 달러화를 추월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한 달간 비트코인으로 교환된 법정 화폐 중 원화 비중은 42.8%로 집계됐다. 9월부터 이날까지 원화 시장점유율은 약 41%로, 그 이전과 비교하면 17%포인트(p) 확대됐다. 블룸버그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50% 이상 급등하면서 거의 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랠리에서 한국 트레이더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시은 기자 zion0304@ 이진영 기자 mint@

공매도 금지 한달... 외인 던진 이차전지 개미가 덤석

셀 코리아 없이 반도체 株로 환승
삼성전자·SK하이닉스 폭풍 매수

금융 당국이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외국인 ‘셀 코리아’ 우려는 완전히 빗나간 모습이다. 외국인은 이차전지를 던진 대신 반도체 종목을 사들이면서 국내 증시로 돌아왔다. 개미(개인투자자)들은 이차전지를 사들이며 외국인 빈자리를 메꿨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됐던 11월 6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769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10월 한 달 사이에만 2조9442억 원을 팔아치우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오히려 개인들은 공매도 금지 한 달 동안 4조6840억 원어치를 팔았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다. 11월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거래대금 비중은 26.28%였다. 10월(31.51%) 대비 5.23%포인트(p) 줄어든 수치다. 코스닥 시장에선 14.98%로 10월(17.34%) 대비 2.36%p 줄었다.

외국인과 개인의 투자 행태도 엇갈렸다. 이 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순매도 상위 1위 종목은 3934억 원을 순매도한 삼성SDI로 집계됐다. POSCO홀딩스도 3737억 원어치를 처분했다. 이어 포스코퓨처엠(3028억 원)은 3위, LG화학(2988억 원) 4위, 에코프로머티(1356억 원)는 5위를 기록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이차전지 대량 매도에 나선 모습이다. 외국인이 던진 이차전지 물량은 그대로 개미들이 담았다.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

들은 삼성SDI를 3897억 원어치 사들였다. 개인 투자자 순매수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외에 개인은 POSCO홀딩스(3576억 원), 에코프로머티(2838억 원), 포스코퓨처엠(2635억 원), LG화학(1695억 원), 에코프로비엠(1287억 원) 순으로 순매수했다. 이차전지 종목을 대거 팔아치운 외국인의 눈길은 반도체 종목들로 향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조7869억 원, SK하이닉스 3684억 원 폭풍 순매수했다.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 높이가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메모리 반도체 부문 영업 이익이 흑자전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상태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의 낸드 가동률이 3분기 말 30% 수준에서 40~50%로 급반등이 예상된다”며 “SK하이닉스도 우리 공장 가동률이 3분기 70%에서 연말 75~80%로 반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더 화가나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에 따르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 및 공매도제도 중단 기간 내 반드시 개혁해야 할 사항에 관한 청원’은 전날 오전 동의인수 5만 명을 넘겨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농림축산식품부



FOODPOLIS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식품산업의 혁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함께합니다.



식품기업을 위한
지원사업문의·분양안내
063-720-0500



“시장 선두주자 사회적 책임 커… 강력 제재로 투자자 보호”

인터뷰

가상자산법 발의 민병덕 의원

수수료 수입 목매는 업계 협의체
국내 상장 해외코인 ‘수수방관’
시장 자정역할 미약해 입법 필요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획득한 시장 지위는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선두 주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경쟁 질서는 중요하다.”

민병덕(사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은 업비트가 80%대를 점유하고 있다. 민 의원은 “독과점에 따른 시장 지배적 우월적 지위의 남용은 오랫동안 경험한 문제”라며 “가상자산 시장 초기에 제대로 된 거래관계 및 공정질서, 투자자



보호 등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 의원은 “자본시장 과점 문제는 자율 경쟁 체제 도입이 이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시장이 자정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법과 제도에 따라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금융산업이 규제산업으로 성장해 온 점에 비춰볼 때 향후 가상자산 시장도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예

박사 회원사 사업 실적(단위: 원)

	UPbit	bithumb	Coinone	korbit	GOPAX
매출	1930억	324억	349억	43억	15억
영업이익	1018억	-6억5000만	-210억	-358억	-760억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 2023년 3분기 2022년(3개 회원사 2023년 미공시)

측했다.

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박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협의체 성격상 법정 단체가 아닌 자율 규제 단체인 박사가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사 소속 대형 거래소들이 버거코인 장사로 수수료 수입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박사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해 버거코인에 의한 제2의 테라·루나 사태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사가 법정 단체는 아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자율 규제를 하겠다며 만든 대표 단체”라며 “대표 단체로

서 5대 원화마켓 협의체 성격보다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에 대한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7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민 의원은 2021년 가상자산법안, 2022년 디지털자산 거래법안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 발의에 참여하며 일찍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을 두기도 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 발전 속도가 제도 정착보다 빠르다”며 “테라·루나 사태, FTX 붕괴, 바이낸스 법률적 조치 등을 겪으며 가상자산 시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에도 여전히 시장은 건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은 기민하게 움직이는 시

장에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보호차원의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투명하지 않은 정보 독점과 소비자 보호를 게을리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보호에 목적을 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외에도 향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 법안도 준비 중이다. 민 의원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제정에 앞서 사업 주체가 먼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박사에 대해서도 말했듯이, 우리나라 가상자산 사업주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지의 의구심이 있다”며 “코인 가격에 따라 투자자의 희비가 엇갈리는 반면, 거래소는 거래량에 따른 수수료가 수입이기 때문에 현재 제도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를 위한 법이라고 해서 책임감이 결여된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기울어진 코인시장 ‘박사’ 침묵도 한몫”

박사, 상장 폐지 기준 비공개
JVCEA, 의사결정 전반 투명
국감서도 박사 자율규제 지적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량 쏠림에 따른 영향은 각 거래소 매출 차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박사)의 권한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운영에 많은 비용을 내는 업비트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사는 회원사가 담당하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운영된다. 일반회비는 각 거래소가 동일하게 납부하지만, 특별회비는 거래소 매출에 비례하기 때문에 업비트가 가장 많이 납입하는 구조다. 박사는 1사 1의결권 구조이기 때문에 업비트 위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했지만, 거래소간 매출 대비가 극명하기 때문에 박사가 업비트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박사와 업비트를 둘러싼 지적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수이(SUI) 유통량 변경에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는 업비트와 박사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업비트가 수이 측으로부터 변경된 유통량에 대한 공지를 해명 없이 공개만 했다는 게 이유다.

민 의원은 국감 당시 “업비트와 박사가 자율규제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유통량 변동 공개뿐 아니라, 변경 사유도 설명했어야 한다”며 “수이 유통량 30% 이상을 업비트가 차지하고 있어 해명을 듣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사가 자율 규제를 할 능력이 미흡하고, 1위 거래소인 업비트 눈치를 보고 있다”며 자율규제 기관인 박사의 한계점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달 고팍스의 위믹스(WEMIX) 상장에도 박사의 결정이 석연치 않다는 업계의 의견이 팽배하다. 위믹스는 지난해 박사 결정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에서 동시 상장폐지 됐다. 박사는

“공동 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된 종목에 대해 거래 지원을 함에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라고 한 자율 규제 절차를 위반했다”며 고팍스를 상대로 3개월간 박사 의결권을 제한했다. 코인원은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는 점과 고팍스는 위믹스 상장이 처음임에도 박사 의결권 제한 조치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박사 관계자는 “고팍스의 위반 조치는 거래 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재개 항목 위반”이라고 말했다.

코인원은 거래지원을 종료한 뒤 두 달 만에 위믹스를 재상장했다. 이후 박사는 공동으로 상장폐지된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박사는 위 기사항에 해당해 공동 대응으로 거래지원 종료를 했던 경우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등을 거래지원 심사 시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박사의 상장 폐지 기준은 대부분이 공개돼 있지 않아 자율 규제에 물음표만 남긴다. 이는 일본의 가상자산 업계 자율 규제 기구 가상자산거래소협회(JVCEA)와 비교된다. JVCEA는 상장과 폐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회비, 운영회계 등 의사결정 전반을 공개하고 있다. JVCEA가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사단법인이라는 점과 달리, 박사가 아직 법적 권한이 없는 협의체라는 한계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팍스에 앞서 코인원도 위믹스를 상장했는데, 고팍스에만 제재 조치가 가해졌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가 실적 개선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사가 자율 규제 기관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거래소가 위믹스를 상장해도 강제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KB 금융그룹 | 국민의 재산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나의 반쪽을 위한 KB 금쪽같은 펫보험

내 발소리만 들려도 현관에 코를 박고
하루 온종일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나의 반쪽인 너를 평생 지켜주고 싶으니까

아프지 않게, 고생하지 않게
항상 든든하게 지켜줄게

KB금쪽같은
펫보험은?

1 반려동물치료비
(특약)

2 무지개다리위로금
(사망) (특약)

3 반려동물양육자금 I, II
(일반상해사망, 질병사망) (특약)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약에 따라 갱신주기 및 최대 갱신 나이가 다를 수 있으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협의 심의필 제87277호(2023.06.05~2024.06.04)

‘신사업·글로벌·전문가’ 방점… 계열사 수장 14명 물갈이

롯데그룹, 정기 임원인사

롯데그룹이 내년도 사업을 책임질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14명을 물갈이하는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젊은 리더십 전진 배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핵심 인재재배치, 외부전문가 영입 확대, 글로벌 역량·여성 리더십 강화 등에 방점을 찍었다. 전체적으로 임원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지난해 대비 주요 경영진이 대폭 교체됐다. 롯데그룹 오너가 3세 신유열 상무는 1년 만에 전무로 승진하고 지주회사로 이동해 바이오와 헬스케어 등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롯데그룹은 경영 역량과 전문성이 검증된 내부 전문가들을 그룹 내 전략적 재배치함으로써 기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신 회장은 올해 3월 상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에서 “올해는 재도약을 위해 지난 몇 년간 준비

임원 ‘안정’-경영진 ‘쇄신’ 택해 핵심사업에 대내외 전문가 배치
신동빈 장남 ‘미래 먹거리’ 특명
女임원 역점…비율 9.8%로 증가

했던 노력을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핵심 사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경영 자원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의 ‘뉴롯데’를 실현하기 위해 롯데지주는 글로벌 및 신사업을 전담하는 ‘미래성장실’을 신설해 바이오, 헬스케어 등 신사업 관리와 제2의 성장 엔진 발굴에 나선다. 초대 미래성장실장은 신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상무가 전무로 승진해 보직을 맡았다. 신 전무는 다양한 글로벌 투자 경험을 토대로 그룹 중장기 비전과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 신사업 확대의 중책을 수행할 예정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도 겸직한다. 롯데그룹

2024년 롯데그룹 정기임원 인사



					
이훈기 롯데 화학군 총괄대표 사장	이영구 롯데 식품군 총괄대표 부회장	노준형 롯데지주(주) ESG 경영혁신실장 부사장	박익진 롯데쇼핑(주) e커머스사업부 대표 부사장	장재훈 롯데물산(주) 대표이사 부사장	김소연 롯데AMC(주) 대표이사 전무

미래성장의 핵심인 바이오사업 경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CDMO(Contract Development Manufacturing Organization) 기업으로의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롯데그룹은 미래 성장을 위한 인력 재배치도 단행했다. 롯데정보통신에서 신사업 및 IT·DT사업을 주도한 노준형 대표이사를 선임 롯데지주 ESG경영혁신실장으로 내정했다. 노 실장이 롯데정보통신 대표이사 재임 당시 메타버스·전기차 충전·도심항공교통(UAM)·자율주행·대체불가토큰(NFT)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한 만큼 지주에서도 그룹 포

트폴리오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는 이번 임원인사를 통해 계열사 수장의 세대교체를 더욱 가속화했다. 60대 롯데 계열사 대표이사 8명이 퇴진했는데, 이들을 포함해 계열사 대표이사 14명이 교체됐다. 롯데그룹 화학사업은 5년간 진두지휘했던 김교현 롯데화학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옹퇴하고, 후임으로 롯데지주 ESG경영혁신실장이던 이훈기 사장이 롯데화학군 총괄대표를 맡게 됐다. 이 사장은 전략·기획·신사업 전문가로, 기존 사업의 역량 제고 및 사업 포트폴리오 완성을 통해 화학 계열사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최적의 인물로 평가받는다. 롯데는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 사업 확대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각 비즈니스 분야의 외부전문가 영입에도 공을 들였다. 롯데물산 대표이사에게 장재훈 JLL(존스랑라살) 코리아 대표, 롯데e커머스 대표에 박익진 어피니티에 쿼티파트너스 글로벌오퍼레이션그룹 총괄헤드, 롯데AMC 대표이사에게 김소연 HL리츠운용 대표를 각각 내정했다. 신 회장이 역점을 둔 여성 임원 규모도 늘었다. 전무 이상 고위임원 중 여성의 비중은 지난해 7.4%에서 올해 9.8%로 증가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노조 회계공시 91.3% 참여... 기아차지부 등 거부

고용부, 첫 노조 회계공시

1000인 이상 739곳 중 675곳 공개
교부금·인건비·교섭비順으로 지출

1000인 이상 노동조합과 산하조직 중 91.3%가 회계를 공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등 일부 노조는 공시를 거부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1000인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6일 밝혔다. 최종 공시율은 91.3%다. 상급단체별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94.0%, 민주노총은 94.3%가 공시를 완료했다.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였다.

회계를 공시한 노조들은 지난해 1년간 조합비 등으로 8425억 원의 수입이 있었고, 이 중 8183억 원을 지출했다. 단,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와 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은 조직 방침 등을 이유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수입이 가장 많은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595억 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228억 원),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 원) 순이었다. 노조당 평균 수입은 12억5000만 원이었다. 총수입액 중 89.0%(7495억 원)는 상·하부 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었다. 이어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8.2%), 수익사업 수입(1.5%), 보조금 수입(0.7%) 순이었다.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억1000만 원이었는데,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수입 전액이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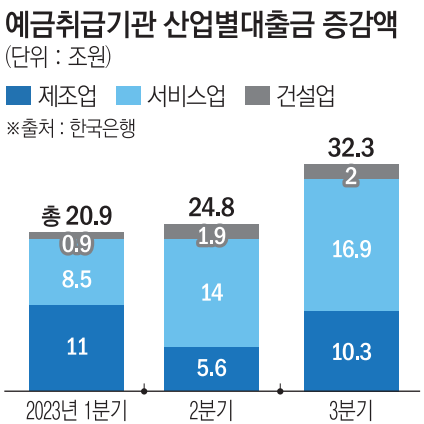
비였다. 지출금액 비중은 상·하부조직 교부금(31.6%), 노조 임직원 등 인건비(18.4%), 노조 조직사업비(8.6%), 교섭·쟁의사업비(5.2%) 순으로 많았다. 노조당 평균 지출은 12억1000만 원이었다. 상급단체 부과금과 하부조직에 대한 교부금은 각각 11.9%, 19.7%였다. 교육·홍보사업비와 정책사업비는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8%, 2.7%에 불과했다. 지출금액 비중은 노조별로 차이가 컸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금속노조 우리은행지부는 인건비 비중이 각각 45.2%, 56.8%, 54.3%에 달했다. 반면, 롯데지알에스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은 업무추진비 비중이 각각 87.8%, 74.9%, 59.2%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기업·정부·기관 대출 ‘역대 최대’

3분기 금융기관 산업대출 32조 ↑
법인 869조·비법인 465조 집계

가계를 제외한 기업과 정부·공공기관이 금융기관에 돈을 빌린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분기에만 30조 원 넘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3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1875조7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32조3000억 원 증가했다. 통계집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산업별 대출금의 증가 폭은 지난해 2분기(68조4000억 원) 이후 올해 1분기(20조9000억 원)까지 3분기 연속 감소했다. 그러다 올해 2분기(24조8000억 원)에 증가 폭이 늘었고, 3분기에 그 폭이 더 확대됐다.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통계는

원화대출금 중 가계대출을 제외한 여타 대출금을 산업별로 분류한 통계다. 주로 기업 대출이지만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등도 포함한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공표하지 않고 있다. 은행 유형별로는 예금은행(1333조6000억 원)의 대출 규모가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 원 늘었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542조1000억 원)은 1조9000억 원 증가했다. 예금은행은 일반적인 은행을 말하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을 포함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457조7000억 원)의 대출 규모가 10조3000억 원 늘었다. 전 분기(5조6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서비스업(1205조9000억 원) 대출도 2분기 14조 원에서 16조9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한은은 이번 3분기부터 예금은행 산업별 대출금을 기업형태별로 법인기업과 비



법인기업으로 분류한 통계를 추가로 공표한다. 3분기 예금은행(1333조6000억 원)의 법인기업 대출 규모는 868조8000억 원으로, 개인기업 등 비법인기업 대출 규모는 464조800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산업별로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의 예금은행 대출(234조7000억 원) 가운데 법인기업 대출금이 115조3000억 원(49.1%, 예금은행 내 비중), 개인사업자 등 비법인기업 대출 규모가 119조4000억 원(50.9%)으로 각각 집계됐다. 서희희 기자 jhsseo@

금수품 넘기고, 광물 사들이고 中, 국제협약 어기고 ‘北 밀월’

본지, 中해관총서 데이터 분석
수입 상위품목 핵심광물·자재
北에는 강철 등 위반품목 수출
美 연구소 “간접적 대북지원 ↑”

중국이 최근 2년에 걸쳐 북한으로부터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과 관련한 핵심 광물을 적극적으로 수입하는 한편, 올해 들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하던 금수품을 북한에 수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본지가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가 공개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제품 상위 10개 항목(거래액 기준) 가운데 5개가 반도체나 배터리와 연관된 핵심 광물·자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수입한 순으로 △페로실리온(실리콘 함량 55% 이상) △팅스텐 광석·정광 △몰리브덴 광석·정광(로스팅 제외) △탄화규소 △흑연과 탄소 기반 제품 등이다. 페로실리온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순수 실리콘에 사용되는 합금으로, 올해 수입은 1억8153만 위안(약 332억 원)에 달했다. 중국의 대북한 전체 수입 품목 가운데 2위에 해당하는

는 수준이다. 배터리에 필요한 텅스텐의 광석과 정광도 1억5192만 위안을 기록해 3위에 자리했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 텅스텐과 페로실리온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탄화규소와 흑연 역시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이다. 중국은 2021년만 해도 페로실리온과 탄화규소를 조금 사들이는데 그쳤지만, 지난해부터 광물과 자재 수입 규모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수입은 크게 늘었다. 반면 지난해까지 일절 수출하지 않던 유엔 안보리 금수품을 올해부터 북한에 팔기 시작했다. 원자로·보일러·기계류를 비롯해 모터나 전기장비, 알루미늄, 강철 등 유엔 제재 결의안 2397호에 포함된 제재 품목이 대거 포함됐다. 2397호는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결의안으로, 현재로선 최신 안건이기도 하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본지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광물 수출은 경화(硬化·언제든 교환 가능한 화폐)를 얻음 방법을 찾으려는 북한의 다른 노력과 일맥상통한다”며 “중국은 북한의 이런 점을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수입 다변화·비축 물량 확대… 2차 요소수 대란 없을 것”

정부 “비축량 3.7개월분 확보”
비축 물량 1.2만톤… 두 배 확대
2000톤은 상황 따라 조기 방출
수입 다변화 기업에 지원금 검토
롯데정밀화학 중동·동남아 확보
업계 “악몽 재현될 가능성 낮아”

요소수 수급 불안 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현재 정부가 밝힌 요소수 재고 물량은 3.7개월분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추가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에 수출 예정이던 산업용 요소 상당량이 중국 해관(세관)에 의해 선적 작업이 중단되며 발이 묶였다.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요소 수출을 제한한 건 아니지만, 자국내 요소 수급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부는 4일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고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정부는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업계는 대체 수입국과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동남아, 중동 등 요소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수급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요 시 시장 안정화



요소수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선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에서 박석재 점장의 설명을 들으며 진열된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비축을 늘려 공급망 유동성을 준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은 1개월 사용분에 해당하는 6000톤(t) 규모의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이르면 시일 내에 1만2000톤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000톤을 상황에 맞춰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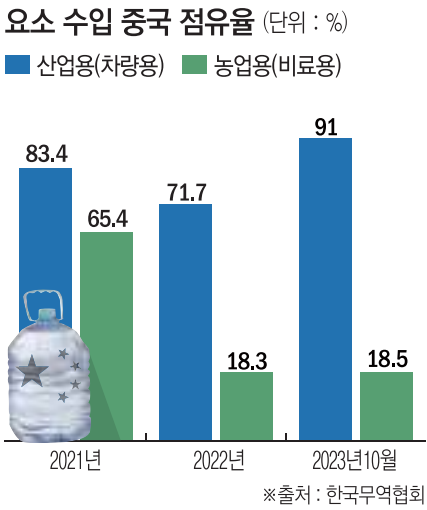
환경부와 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 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 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다 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내 주요 요소수 업체들도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기업별 요소 재고가 최대 한 달 치에 불과했던 2년 전과 달리 내년 초까지 비축분을 확보해줬고, 수입처 다변화 노력도 지속하고 있어 요소수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업

계의 설명이다. 롯데정밀화학은 이번 주 베트남산 요소 5000톤을 추가 계약했으며, 중동·동남아 등에 다양한 수입처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롯데정밀화학의 계약분은 기존에 확보한 3개월분에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 물량이다. 이를 포함하면 현재 요소수 재고물량은 3.7개월로 늘어난다.

롯데정밀화학 관계자는 “3월 중순까지 3~4개월분 물량을 확보했고, 중국산 통관이 안 되더라도 중동이나 동남아에서 물량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가격이나 물류적 이점이 떨어지긴 하지만 충분히 운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최근 요소 수급 이슈가 나오며 요소수 주문이 늘기는 했지만, 필요한 곳에 적절히 할당해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당장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질소산화물 처리 설비 등에서 요소수를 사용하는 포스코도 지난해 공급선 다변화를 완료해 이번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국 시장 상황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월 기준 산업용 요소의 90%가량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2021년 1차 요소수 대란 당시 수입처 다변화 등으로 수입 비중이 60~70%가량으로 감소했지만, 값싼 중국산 요소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다시 높아졌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이동욱 기자 toto@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교통안전 지자체 ‘하남·계룡·철원·인천 동구’

안전 낮은 곳은 ‘평택·경주·성주’

인구 30만 명 이상 지자체 중 교통이 가장 안전한 지역은 경기 하남시, 30만 명 미만은 충남 계룡시, 군 지역은 강원 철원군, 구 지역은 인천 동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교통안전이 나쁜 지자체는 경기 평택시, 경북 경주시, 경북 성주군, 서울 강남구였다.

도로교통공단이 6일 발표한 ‘2022년도 교통안전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하남시, 계룡시, 철원군, 인천 동구의 교통안전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교통안전지수가 향상된 지역은 전주, 당진시, 전남 보성군, 대구 중구로 나타났으며 특히, 당진시는 교통약자 등 6개 모든 영역에서 크게 개선되며 전년대비 24.25%의 높은 개선율을 보였다. 반면 교통안전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구 30만 명 이상 시에서는 경기 평택, 30만 명 미만 시는 경북 경주, 군 지역은 경북 성주, 구 지역은 서울 강남으로 조사됐다.

2022년 전국 교통안전지수는 78.98점으로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30만 명 미만 시와 군, 구 지역은 교통안전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한 지수로, 노인, 이륜차, 화물차 등 18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취약영역 파악 및 교통안전정책에 활용 가능한 지수이다. 또 지역 규모에 따라 인구나 도로연장 등 교통여건의 차이가 있어 4개의 그룹(인구 30만 명 이상 시, 인구 30만 명 미만 시, 군, 구)으로 구분해 A~E 5개 등급으로 평가하는데 점수 및 등급이 높을수록 안전도가 높은 것이다.

김은정 공단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지자체의 교통안전도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지수를 포함한 맞춤형 분석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에서도 교통안전정책 수립 시 교통안전지수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핵심광물 비축기지 2026년 완공

**희소금속 등 수급 위기 신속 대응
정부, 4개 사업 예타 통과 의결**

희소금속 등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비축기지 구축사업이 내년에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열린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핵심산업육성, 환경, 교통시설 등 4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통과를 의결했다.

4개 사업은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장항 국가습지 복원사업 △국도 신장~북용 도로시설개량공사 등이다.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은 수입 의존도

가 높은 희소금속 등 핵심광물자원에 대한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핵심광물을 확보해 수급위기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민간자원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 목표다. 총 사업비는 241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2026년이다.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강원도 동해·삼척 지역에 수소저장·운송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는 3177억 원이다.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지역의 생태습지 및 생태숲 조성 등을 통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장항 국가습지 복원사업에는 2419억 원이 투입되며 2024~2026년 사업이 추진된다.

국도 신장~북용 도로시설개량공사는 불량한 도로선형을 개선하기 위해 2차로 시설개량 중인 국도 77호선 신안군 신장~북용 구간 중 일부 병목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913억 원이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날 위원회는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화순군·태백시·삼척시 3개 지역의 경제진흥 개발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예타를 통과한 4개 사업에 대해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3개 예타대상 선정 사업은 조사수행기관에서 전문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정부 “전기차 충전 10분 내로 단축시킬 것”

**안전관리 용량 200kW서 500kW로
프탈레이트 함량 분석 방법 합리화**

10분 이내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더 K호텔에서 전기·생활·어린이 제품 안전기준과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회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은 전기차 시장 환경변화에 맞추어 국제표준에 기반한 초고속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안을 발표했다. 이 안전기준안이 적용되면 안전관리가 가능한 충전기 용량이 기존 200kW에서 500kW로 늘어난다. 충전 용량이 500kW로 늘어나면 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간이 10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안전 기준 세부 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을 절차를 거쳐 충전기 500kW 시대를 열겠다 구상이다. KOTIT시험연구원 어린이제품의 프탈레이트 함량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로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적용하면 어린이 제품 생산 기업의 시험 비용을 약 40%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신제품을 모든 국민이 안심하게 사용하고 기업 부담은 줄어줄 수 있도록 제품안전 규제를 합리화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연금, 어디서 할까?”



퇴직연금



주택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모~~~든 연금
신한에 물어보세요

꿈꾸는 연금,
행복한 인생
신한은행

퇴직연금, 주택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까지 연금은 역시 신한은행

- 23년 11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 최초 업무협약 체결 · 퇴직연금 수익률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고객관리센터
- 연금 받을 때 더 많이 받으시라고 연금수령 IRP 계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 퇴직연금 중요 알림과 정보를 제공하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카카오톡 전용채널
- 평생소득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 SOL 연금라운지 · 신한은행 연금고객님을 위한 필수 금융정보 52주 레터

[신한 연금라운지] 신한은행 고객님을 위한 맞춤형 연금 상담 전용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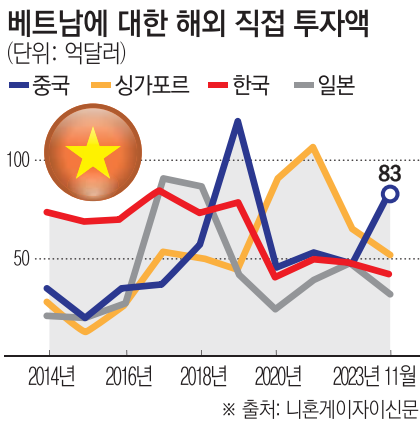
- 일산: 11월 22일 오픈 (031-812-3655, 주엽역 5번출구 신한은행 건물 4층)
- 노원: 11월 27일 오픈 (02-6224-5499, 노원역 5번출구 신한은행 건물 3층)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개인형IRP의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중도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중도해지 또는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의 기준과 면세액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전용 상담센터 1833-3327(평일 9시~18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23-15354-1호(2023.11.17~2024.8.30)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포스트 차이나’에 공들이는 中… 베트남 투자 2배 급증

베트남 外人 투자의 30% 육박
올 83억弗…실제 투자 더 많을 것
싱가포르·태국 회사 통하기도
애플협력사 리신정밀만 3.3억弗



중국 기업들이 ‘포스트 차이나’이자 미국의 공급망 파트너로 꼽히는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은 6일 베트남 외국투자청 자료를 인용해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의 1~11월 대 베트남 투자 금액(인가액 기준)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급증한 83억 달러(약 10조 8896억 원)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전체 투자금액 288억 달러 가운데 약 30% 가까이를 차지했다.

중국은 신규 베트남 투자 건수에서도 900건 이상을 기록하면서 외국인 투자국 가별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한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2배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업의 경우 싱가포르나 태국 자

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사례도 많다. 이 경우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중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애플 등 미국 주요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에 따라 중국의 협력 업체들까지 덩달아 베트남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는 8월 베트남 수도 하노이 인근 공장에 1억44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베트남 누적 투자 금액은 4억 달러를 돌파했다. 애플 에어팟을 위탁 생산하는 리신정밀(영문명 렉스썬어)도 베트남 북부 박장성에 3억 3000만 달러의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미국과 중국, 대만의 역학관계가 중국 기업의 대베트남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이 대중국 포위망을 펼치

면서도 베트남과는 공급망 등에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중국 기업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패널에서도 베트남 생산이 늘고 있다. 태양광 패널 최대 제조사 트리나 솔라는 최근 베트남에 4억2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은 불공정 거래와 인권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태양광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중국에 주요 생산거점이 있는 세계 최대 아이폰 위탁생산업체 화하이정밀공업과 콤팩트 컴퓨터 등 대만 기업들도 베트남에 진출해 다른 공급업체들의 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제트رو) 하노이 사무소의 하기와라

료다로 소장은 “향후 전기차 분야에서도 베트남으로의 이전 움직임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왕완푸 비야디 회장은 5월 베트남을 방문해 전용하부 총리와 만나 베트남에서의 전기차 생산 의향을 전달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 귀슈엔가오커도 베트남 현지에서 공장을 짓고 있다.

다만 만성적인 전력 부족은 해결 과제로 꼽힌다. 베트남 현지 기업들은 매년 여름 당국의 절전 요청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신규 투자를 꺼리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닛케이도 짚었다. 또 베트남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도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변효선 기자 hsbun@

우크라 향하던 돈줄 마른다 美·EU ‘두 개의 전쟁’ 고민

헝가리·불가리아 NATO의 지원 반대
EU에 우크라 가입 논의 말라 촉구도
美 의회선 추가지원 예산 놓고 대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 번째 겨울을 맞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향했던 서방의 지원이 위축되고 있다. 전쟁 장기화에 따라 피로감이 커지는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까지 불거지면서 서방의 관심과 지원이 가자지구로 양분된 탓이다.

5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14~15일로 예정된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안건을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오르반 총리는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500억 유로(약 71조 원)의 추가예산 배정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U 가입은 물론, EU 차원의 우크라이나 지원까지 거부한 셈이다.

헝가리에 이어 불가리아도 우크라이나 지원 대열에서 이탈했다. 지난달 불가리아 의회는 ‘우크라이나 장갑차 지원’을 의결했다. 그러나 루멘 라데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럽 안보 강화’라는 명분보다는 자국의 실질적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뜻이다.

사정은 우크라이나 최대 지원국인 미국도 마찬가지다. 백악관의 ‘지원자금 고갈’ 경고에도 우크라이나 지원예산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백악관은 전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 보낸 서한에서 “올 연말까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장비를 보낼 재원이 바닥난다”라면서 조속한 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10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태평양, 미국 국경 지원 등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패키지로 묶은 1060억 달러(약 142조 원) 규모의 안보예산을 의회에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여전히 의회에서선 답보 상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등에 대한 절차 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실기한 기밀 브리핑에 화상으로 참여해 예산안 통과를 호소할 예정이었지만, 막판 이를 취소했다.

불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국 의회 내 극심한 대립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여당과 정부가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라며 브리핑 자리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이스라엘군, 가자 남부 시가전 개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칸유니스 등 가자지구 남부에서 시가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칸유니스는 가자지구에서 가자시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로, 개전 이후 비교적 안전지대였다. 휴전 연장이 결정되면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으로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칸유니스(팔레스타인)/AFP연합뉴스

못다 판 신발·의류 EU 폐기 금지한다

유럽에서 의류사업자들이 더는 재고로 남은 의류와 신발을 버리지 못하게 됐다.

유럽연합(EU) 이사회와 유럽 의회,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등 EU 주요 기관이 5일(현지시간) 제품 환경 관련 규정인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새 규정은 기존 ‘지침’을 ‘규정’으로 강화하고, 적용 대상도 전자제품에서 섬유, 가구, 철강 등 거의 전 제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코디자인 규정 잠정 승인 전자제품서 전제품으로 확대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앞으로 팔리지 않거나 반품된 의류를 그대로 일괄 폐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의류 업계는 비용 문제로 재고품을 재단·소각해 쓰레기로 처분해왔다. EU에 따르면 매년 폐기되는 옷은 1인당 평균 12kg으로, 전체적으로는 1260만 톤(t)에 달한다. 2000년대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신 트렌드의 유행을 따르는 패스트 패션이 유행하면서 폐기 의류는 더욱 급증했다. 맥킨지에 따르면 의류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1억 톤으로, 기후변화 요인 중 네 번째로 큰 항목으로 꼽혔다.

또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전자여권도 다른 제품에까지 확대 도입된다. 일반 제품의 생애주기 정보와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원료 이용률, 내구성 점수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게시하도록 한다.

이로 인해 유럽의 기업들은 재사용이나 재활용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한층 더 안게 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등 역외 수출국들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변효선 기자 hsbun@

‘세계 5대 증시’ 인도, 시총 4조弗 첫 돌파

3년 안돼 1조弗↑ 8년째 상승 눈앞

인도증시가 탄탄한 내수 시장과 경제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에 힘입어 올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세계 5대 증시인 인도증시 시가총액이 5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약 5250조 원)를 돌파하며 이제 홍콩을 맹추격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인도증시 시총은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아 1조 달러 증가했다. 증시 벤치마크인

센섹스지수는 올해 약 14% 오르면서 전례 없는 8년 연속 상승세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또 다른 벤치마크인 니프티50지수도 14.6% 올랐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인도증시에서 150억 달러 이상을 순매수했다. 인도 내에서 유입된 자금은 200억 달러에 달했다.

인도는 부진에 빠진 세계 4위 홍콩증시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히고 있다. 홍콩恒生지수는 올해 18% 가까이 하락하면서

시총이 4조70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현재 세계 증시 1~3위는 미국과 중국, 일본이 각각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인도는 2023 회계연도 2분기(올해 7~9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기준 7.6%를 기록하며 두드러지는 성장세를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인도 경제가 6.3%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지난달 말 치러진 3곳 주의 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것도 투자자들의 안도감을 끌어냈다. 인도 자산운용사 세어칸의 산지브 호타

주식 브로커는 로이터통신에 “BJP가 승리하면서 시장은 내년에 포폴리즘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인도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했다.

액시스뮤추얼펀드의 아쉬시 굽타 최고 투자책임자(CIO)는 “인도 경제가 소비 중심에서 소비·투자가 함께 주도하는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시장은 이러한 인도의 잠재적 강점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분석했다.

전야현 기자 cahyun@

〈시니어케어 로봇〉 〈시각장애인용 솔루션〉

봇핏·릴루미노…삼성 웨어러블 착한기술, 내년에 빛본다

제품 상용화 눈앞

삼성전자의 시니어케어 로봇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글래스가 내년에 본격 상용화될 전망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이나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착한 기술의 진화로 평가된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슬라이딩 어셈블리 및 이를 포함하는 운동 보조 장치’란 기술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사용자의 다리 근력을 보조할 수 있도록 장착하는 슬라이딩 장치와 관련한 특허다. 내년 초 출시 예정인 시니어케어 로봇 ‘봇핏’에 적용되는 기술로 파악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5월에 2건, 7월과 8월에 각각 1건씩, 9월에 2건 등 봇핏 관련 특허를 잇달아 출원했다. 또 3월에는 ‘봇핏(Bot Fit)’ 상표권을 등록하고, 5월에는 ‘봇핏’ 관련 콘텐츠 상표도 출원했다.

‘슬라이딩 어셈블리…’ 기술특허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운동보조로봇 ‘봇핏’ 관련 파악

지난달 말엔 ‘릴루미노’ 상표권

저시력장애인 시각보조솔루션

편의성 높여 사회공헌 나설 것

봇핏은 2019년 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에서 EX1(젼스립)이란 이름으로 첫선을 보인 후 삼성전자의 1호 웨어러블 로봇으로 관심을 받았다.

당초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제품 생산 및 제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출시 시점을 미뤄왔는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각장애인이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삼성전자가 개발한 저시력 시각장애인용 시각 보조 솔루션 ‘릴루미노’를 체험해보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시각장애인용 솔루션도 상용화를 눈앞에 뒀다. 지난달 말 삼성은 ‘Relumino(릴루미노)’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했다. 릴루미노란 빛을 되돌려준다는 뜻의 라틴어로, 시각장애인의 약 90%를 차지하는 잔

존 시력이 남아 있는 저시력 장애인이 사용 대상이다.

저시력 장애인의 잔존시력을 활용해서 사물의 인식률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폰 영상처리 소프트웨어인 ‘릴루미노 앱’과 안경타입 웨어러블 기기인 ‘글래스’로 구성돼 있다. 릴루미노 글래스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생활 속 이미지는 스마트폰의 릴루미노 앱에서 윤곽선 강조, 확대·축소, 색반전·대비 등 영상 처리를 통해 저시력 장애인의 사물 인식률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된다. 사용자는 글래스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개선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릴루미노 개발은 2016년 삼성전자의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C랩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2017년 세계 최대 이동통신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고, 2018년 CES

에 시제품이 전시됐다.

2021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과학 진료용 소프트웨어(SW)’로 품목허가를, 지난해에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전파인증을 받았다. 올 초에는 사용 적합성 검증을 목적으로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등에 30여 대를 무상 시범 보급하는 등 상용화 작업이 착착 진행 중이다.

릴루미노 과제를 시작한 조정훈 연구원은 “시각장애인들 92%가 여가활동 1순위로 TV 시청을 꼽을 정도로 TV 의존도가 높지만, 실제 시청 접근은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사회공헌형식으로 상용화시킬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작고 가벼운 릴루미노 글래스 개발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추가 기능도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하이브리드 가속에…車업계 “전기차와 투트랙”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는 가운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개발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기차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 동시에 하이브리드차 모델을 확대하며 병행 전략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너럴모터스(GM)는 최근 북미 시장에 하이브리드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GM이 북미에 하이브리드차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GM은 2035년까지 모든 생산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기차 올인’ 전략을 추진해왔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개발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는 반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어서다. 전기차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점도 전략 수정의 배경이다.

하이브리드차의 인기는 수치로도 확인

전기차 둔화 따른 수익성 악화에

EV·HEV 병행개발 전략 선회

GM, 북미에 하이브리드 도입 검토

포드·현대차도 투트랙 전략 강화

된다. 자동차시장 조사업체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적 기준 경유차는 28만8834대 팔려 하이브리드차(28만3365대)를 5000대가량 앞섰다. 하지만 최근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하이브리드차가 사상 처음으로 경유차를 앞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입차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가솔린차를 추월하기도 했다. 올해 미국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35%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현대차, 포드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하이브리

드차 라인업을 확대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포드는 향후 5년 동안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을 4배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3분기 포드의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1.4% 급증했다.

현대차그룹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라인업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 내년 현대차는 아이오닉7과 캐스퍼 전기차를, 기아는 EV3와 EV4를 내놓는다. 현대차는 2025년이면 캐스퍼와 베뉴를 제외한 모든 세단 및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라인업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들이 수요 둔화 국면을 맞아 하이브리드차라는 교두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전기차로 전환하는 방향성 자체는 바뀌지 않겠지만 당분간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동시에 개발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3년 만에 새 단장…현대차 ‘더 뉴 투싼’

현대자동차가 대표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투싼의 부분변경 모델을 6일 출시했다. ‘더 뉴 투싼’은 2020년 9월 출시 이후 3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부분변경 모델이다. 현대차는 더 뉴 투싼에 강인하고 역동적인 외장 디자인과 신차 수준의 변화로 고급감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내장 디자인을 구현했다.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한 N 라인 모델을 함께 내놨다. 더 뉴 투싼의 외관위 사진과 내부 모습.

현대자동차가 대표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투싼의 부분변경 모델을 6일 출시했다.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K-방산, 중동·아프리카 판로 확대 총력전

이집트 방산전시회 EDEX 참가 자주포·전투기·유도미사일 선포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들이 7일까지 이집트 카이로(Cairo)에서 열리는 ‘이집트 방산전시회(Egypt Defence Expo 2023)’에 참가해 중동·아프리카 시장에서 K-방산을 알리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전투 체계 등 다양한 안보 솔루션을 제시하고 개최국은 물론 주변국에 첨단기술을 홍보하고 있다.

EDEX는 이집트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전시회로 2년마다 개최한다. 올해는 400개 이상의 방산업체들이 참석해 열기가 뜨거웠다.

LIG넥스원은 처음 EDEX에 참가해 첨단 기술력과 솔루션을 선보였다. 대전차 유도미사일 현공, 항공유도 무기



이집트 군 관계자들이 KAI가 개발 중인 위성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KAI

인 KGGB 등 전시를 통해 이집트 방산 시장에 출시표를 던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K-방산 수출의 핵심 기종인 FA-50을 필두로 KF-21, 미래형 항공기체(Advanced Air Vehicle) 등 차세대 공중전투 체계를 중점 소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베스트셀러 K9 자주포를 앞세워 수출선 다변화에 나섰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중동·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K-방산의 수출 선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toto@

포스코인터, 美·佛 친환경차 부품시장 ‘질주’

GM, 전기차 감속기 3000억 수주 하이비아엔 수소차 부품 1000억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북미와 유럽에서 전기차와 수소차용 부품계약을 잇달아 성공시키며 친환경차 부품시장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최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친환경차 부품 수주를 완료했다.

이번에 수주한 전기차 부품은 감속기로 전기차 구동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자 전기차 시대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대표 부품이다. 계약 규모는 3000억 원으로 2024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추가 수주를 진행 중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기차의 또 다른 핵심 부품인 영구자석과 샤프트 등에 대한 수주도 확대하며 전기차 구동 시스템 벨

류체인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밖에 지난달 프랑스 완성차 업체 하이비아(HYVIA)와 총 1000억 원 규모 수소차 부품 수주를 확정했다. 글로벌 완성차사와 수소차 부품계약을 직접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이비아는 프랑스 르노(RENAULT)와 미국 플러그 파워(PLUG POWER)가 설립한 합작사로 수소전기차 상용차 출시를 앞두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글로벌 자동차사와 친환경차 부품 계약을 연달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를 일찌감치 미래사업으로 낙점하고 역량을 집중해온 덕분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글로벌 트레이더로서 부품 공급사업 확장 외에도 전기차의 또 다른 핵심 부품인 구동모터코어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며 친환경차 사업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오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구독 확장” vs “더 싸게” … 치열한 배달앱 2위 경쟁

고물가 시대 ‘위기의 배달앱’

고물가 등으로 배달앱 이용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상위 3사 중 쿠팡이츠만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여 2위인 요기요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요기요는 구독 상품의 구독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등 강수를 들고 점유율 방어에 나서면서 수익 악화도 우려된다.

6일 아이지아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의 11월 월간활성이용자(MAU) 수는 2949만66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줄었다. 전월과 비교하면 0.7% 감소했다.

업체별 MAU는 배민이 1898만8926명으로 전년 대비 3.9% 줄었으나 경쟁사 대비 압도적 우위를 지키고 있다. 요기요는 569만3470명으로 14.9% 줄어 감소폭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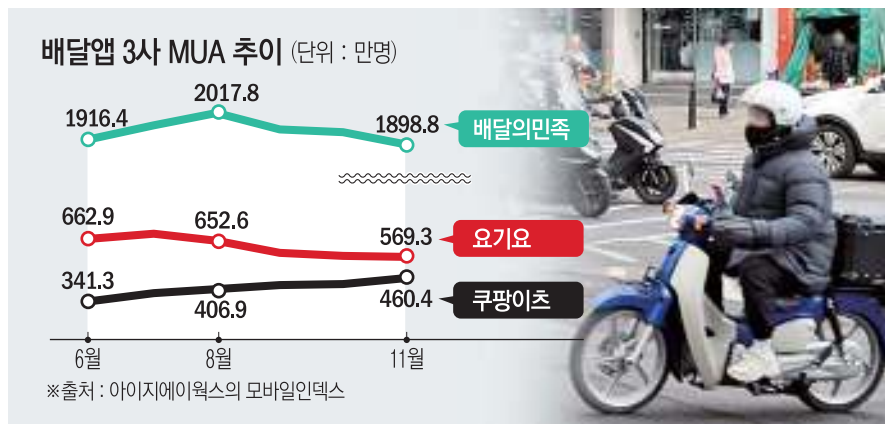
반면 쿠팡이츠는 460만4204명으로 28.1% 증가해 유일하게 확장세를 보였

배민 이용자 줄었지만 압도적 1위 구독서비스 늘린 쿠팡이츠만 증가 요기요, 구독료 절반 할인 초강수

다. 올해 6월부터 추이를 보면 341만3130명에서 7월 385만7667명, 8월 406만9250명, 9월 425만6461명, 10월 433만496명으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기요와 쿠팡이츠 이용자 수 격차도 확연하게 줄고 있다. 양사 간 차이는 작년 285만4310명이었으나 9월 162만2181명, 10월 140만1785명, 11월 108만9266명으로 감소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쿠팡이츠가 ‘와우’ 멤버십을 통해 ‘특인’ 효과가 주효한 것으로 풀이한다. 쿠팡이츠는 올해 4월부터 쿠팡의 구독 서비스 ‘와우’ 멤버십 적용 대상을 배달앱으로 확대했다. 와우 회원은 배달금액의 5~10%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쿠팡이츠의 추적이 거세자 요기요도 유료 멤버십 할인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요기요는 지난달 20일 ‘요기패스X’의 구독비를 9900원에서 4900원으로 인하해 구독자 유치 경쟁전에 나선다고 밝혔다. 요기패스X는 요기요가 5월 선보인 무료 배달 멤버십이다. 요기패스X 대상 가게에서 최소 주문 금액 1만7000원 이상 주문 시 횟수 제한 없이 배달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요기요의 판단은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점유율은 지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요기요는 지난해 1077억 원의 영업손실과 914억 원의 순손실을 낸 바 있다. 이에 올해 초 목표를 적자 축소로 세우기도 했다. GS리테일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요기요 운영사인 위대한상상은 올해 상반기 1395억 원의 매출과 33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결산까지 1개월 남짓으로 길지 않지만, 소비자의 호응 여부에 따라 수익 악화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요기요가 멤버십을

들고 나왔지만 쿠팡이츠처럼 ‘게임 체인저’ 수준의 영향력을 시장에 미치지지는 못했다”며 “또 멤버십 가격을 낮춘다고 해도 요기요가 바라는 수준의 변화를 보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요기요로서는 쿠팡이츠의 추격을 따돌리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달 플랫폼 3사는 이용자 감소 및 연말 증가할 배달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배민은 이달 말까지 배민1 알뜰·한집배달 5% 증복 할인부터 인기브랜드 5000원 할인, 동네맛집 5~2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오오오 할인대전’을 실시한다.

요기요는 멤버십 할인 캠페인 외에 ‘오늘의 할인’ 주문 시 최대 50%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포장 주문 시 최대 30% 돌려주는 ‘요즘포장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와우 친구 초대 이벤트’와 ‘이번주 할인 브랜드’, ‘20% 할인 기획전’ 등을 진행 중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기회를 



가치를 



가치에 



대한민국 희망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발기금



잠재된 국가자산의 가치
• 유류 저활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
• 기업구조혁신펀드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기업)
• 캠프 선택금융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지난달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에 개장한 카본보드 전문숍 1호 '귀뚜라미 경기 남부 대리점'. 사진제공 귀뚜라미



지난달 디어먼데이 경주 춘추관점에 경동나비엔의 '나비엔 숙면매트' 체험존이 마련됐다. 사진제공 경동나비엔

“추운 겨울, 따뜻함 직접 체험하고 구입하세요”

‘소비자 점점’ 늘리는 보일러업계

귀뚜라미·경동나비엔, 체험형 매장 오픈 잠재고객 발굴하고 제품 인지도 높여

국내 보일러 기업들이 체험 마케팅을 펼치며 고객과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온라인으로는 전할 수 없는 생생한 경험을 제공해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제품 인지도도 높인다는 복안이다.

6일 보일러 업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이달 광주광역시에서 카본보드 전문숍 2호 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카본보드 전문숍에서는 카본보드의 실제 시공 모습을 확인하고 다양한 기능을 시연해 볼 수 있다. 귀뚜라미는 9월 카본보드 전문 체험형 매장 1호점인 경기남부 대리점을 개점한 바 있다. 1호점은 500㎡(약 150평) 규모로 평상에 시공된 바닥 난방, 찜질방 벽면 전체에 시공된 공간 난방, 카본보드 전용 블루투스 컨트롤러 등 난방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 설치 가이드 영상도 제공한다. 단열재, 전원 케이블, 필름 보호판 등 추가 물품은 매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 현장에서 가격 견적부터 시공 상담, 설치 일정 등 카본보드 구매 및 시공과 관련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 편의를 강화했다.

귀뚜라미는 카본보드 전문숍을 중심으로 펜션, 기숙사, 기업 연수원 등 숙박시설에서부터 병원, 어린이집, 교실, 경로당, 농막 등 의료, 교육, 사회복지시설까지 다양한 소비층에 대한 영업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내년 상

반기까지 4개 점을 더 확대해서 총 6개 점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전국 광역·도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전문 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최근 공유오피스 업체와 제휴를 맺고 ‘나비엔 숙면매트’ 오프라인 체험존을 열었다. 내년 3월 말까지 운영되는 체험존에는 나비엔 ‘숙면매트 온수’, ‘숙면매트 카본’이 설치된다. 더 많은 고객이 쉽게 최적의 숙면을 체험하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경동나비엔은 2019년 처음으로 하남 스타필드에 오프라인 매장을 선보인 뒤 올해 일산 더타운몰 킥텍스점 일렉트로마트에 체험형 매장을 오픈했다. 보일러와 온수매트 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겠다는 취지다. 체험형 매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입점해 더 많은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에서는 콘텐츠보일러, 나비엔 정정환기 시스템 등 제품의 외관은 물론 내부 구조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상주 직원의 설명을 통해 필요한 제품을 고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체험형 매장에서 가정 욕실 개수에 맞는 라인업도 추천받을 수 있다. 특히 숙면매트 카본과 온수구매를 검토 중인 고객들도 체험형 매장을 통해 고민을 해소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활과 밀접한데도 외관만 보고 선택하기 어려운 제품을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어 좋은 평가를 받는다”며 “고객 접점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KB 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얼어붙은 마음이 녹았습니다

“은행은 저에게 대출상담 과정에서
인망함과 좌절감을 가져다 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 마음을 열게 해준 분이
'화성남양지점 홍태준 부지점장님' 이십니다.
백혈병으로 투병하는 딸의 병간호로
장사를 그만두고 지쳐 있는 저에게
'기운 내세요. 좋아질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의 빗장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납니다.
살면서 은행 대출 창구에서 이런 진심 어린 말을 듣거나
따뜻함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부지점장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셔서 국민들에게
든든한 힘과 희망을 주세요.”

편지를 보내주신 남성은 고객님 감사합니다.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따님의 치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께 진심을 다하는 KB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토종 공룡OTT’ 초읽기…“넷플 대항마 쉽지 않아” 분석도

티빙+웨이브, 넷플 잡을까

국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합병을 예고했다. 수년 전부터 넷플릭스 독주로 여타 국내 OTT 업체가 성과를 내지 못하자 합병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적자 탈출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6일 한 전직 OTT 업계 대표는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할 경우, 적자 폭만 두 배로 커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다고 해도 ‘실적 개선’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티빙과 웨이브는 해마다 영업손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티빙의 영업손실 규모는 2020년 61억 원, 2021년 762억 원, 2022년 1192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웨이브도 2021년 558억 원

월 이용자 800만 초대형 OTT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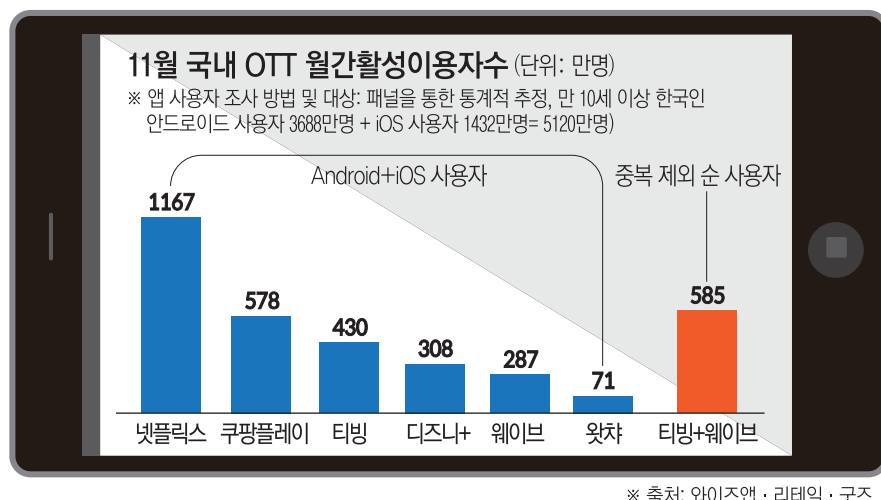
‘규모의 경제’ 넷플릭스 추격 발판

“중복가입 제외하면 600만 안돼 적자 폭만 2배 늘 것” 비판론도

해외진출·오리지널콘텐츠 과제 복잡한 지분구조… 변수될 수도

에 이어 지난해 1216억 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 합병 이후 두 서비스의 중복가입자가 상당했던 만큼 이용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결국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데이터 분석 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11월 기준 월간활성이용자 수(MAU)는 1166만 7320명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쿠팡플레이(577만 7527명), 티빙(429만 7639명), 웨이브(283만 3931명)



가이었다. 중복 포함할 경우 티빙과 웨이브 합병 시 MAU가 777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중복 가입자를 제외할 경우 월간 이용자 수는 584만 6093명으로 넷플릭스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양사의 합병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K-콘텐츠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발굴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 문제는 양사 모두 글로벌 진출은 시

도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협소한 내수시장 때문에 결국 글로벌 진출을 해야 하는데 웨이브가 코코와 서비스로 글로벌 진출을 시도했지만 VOD 수급에 불과했다”며 “진정한 글로벌 진출은 콘텐츠를 현지화해서 가입자 수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글로벌 서비스 노하우가 많지 않은 두 회사가 두각을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빅테크에 밀려 K-콘텐츠 수급도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 중 하나다. 한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는 “제작사들도 기왕이면 넷플릭스나 아마존 등 글로벌 OTT에 납품하고 싶어하지 토종 OTT에 납품하고 싶어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로열티가 수십 배에서 백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복잡한 지분구조도 변수다. 웨이브 최대 주주는 SK스퀘어(40.5%), SBS(19.8%), MBC(19.8%), KBS(19.8%)다. 티빙은 1대 주주인 CJ ENM(48.85%)을 비롯해 네이버(10.66%), SLL중앙(12.75%), KT스튜디오지니(13.54%)의 지분 구조를 갖고 있다. 다양한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것도 난관으로 꼽힌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양측은 실사 작업을 거쳐 내년 1분기 본 계약을 맺고 내년 말 합병 법인을 출범하는 것이 목표다.

김나리 기자 nari34@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이동관 사퇴 닷새 만에 속전속결… ‘포털 제평위 법제화’ 탄력 받나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건물 앞으로 직원들이 지내고 있다. 연합뉴스

새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검사 출신인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됐다. 지난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지 닷새만이다. 후임 방통위원장이 속전속결로 지명된 만큼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 기구화 등 방통위가 그간 추진해왔던 현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김 후보자는 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야당의 거센 반대로 인사청문회가 난항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내 인선이 이뤄져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 내정자는 이날부터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과 서류를 보고받고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법정 기구화’ 발의 예고 법안 마련 작업 속도 붙을 듯

지상파 3사 등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 재허가 건 시급

언론노조 “경력 전무” 거센 반발

방통위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현재 정족수 5인 상임위 중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은 1인 체제로 사실상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이달 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지상파 3사를 포함한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 재허가 건은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기한 내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들 방송사는 무허가 방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시한을 넘기면 방통위가 일시적으로 방송 연장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마저도 의결 사항이라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달 내 발의를 예고한 제평위 법정 기구화를 위한 법안 마련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제평위 운영이 중단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전날 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와 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곧 법 개정을 마련하고 올해 내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제평위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과 산학계에서는 제평위 법제화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리도 당면과제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기업(유진엔티)가 신청한 YTN 최대액출자자 변

경과 관련해 심사위원회는 승인했으나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최종 승인을 보류했다.

여기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해 임저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 결과에 대한 후속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구글·애플 등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사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후보자의 지명 소식에 언론 노조는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 분야 경력이 전무한 대검 중수부장 이력도 황당하지만, 국민권익위원장이 방통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는 사실은 더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임유진 기자 newjean@

위메이드, 두바이에 ‘위믹스 플레이센터’ 만든다

국내 게임사 첫 DIFC와 파트너십 1억달러 규모 웹3 게임 펀드 조성

위메이드가 한국 게임사 최초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의 ‘이노베이션허브’(Innovation Hub)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DIFC는 자체 행정·사법·감독 기구를 갖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금융특구다. DIFC 이노베이션허브는 최근 두바이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 중인 웹3, 게임, AI 분야 글로벌 기업들을 두바이에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위메이드는 DIFC의 파트너사로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위메이드는 DIFC 이노베이션허브 내 위믹스 플레이 센터를 설립하고 위믹스 온보딩 게임사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DIFC와 1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웹3 게임 펀드를 조성하고, 위믹스 온보딩사들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DIFC 이노베이션허브와 함께 웹3 관련 행사도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

두바이는 경제성장 촉진과 투자 유치를 위해 선도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사업과 암호화폐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DIFC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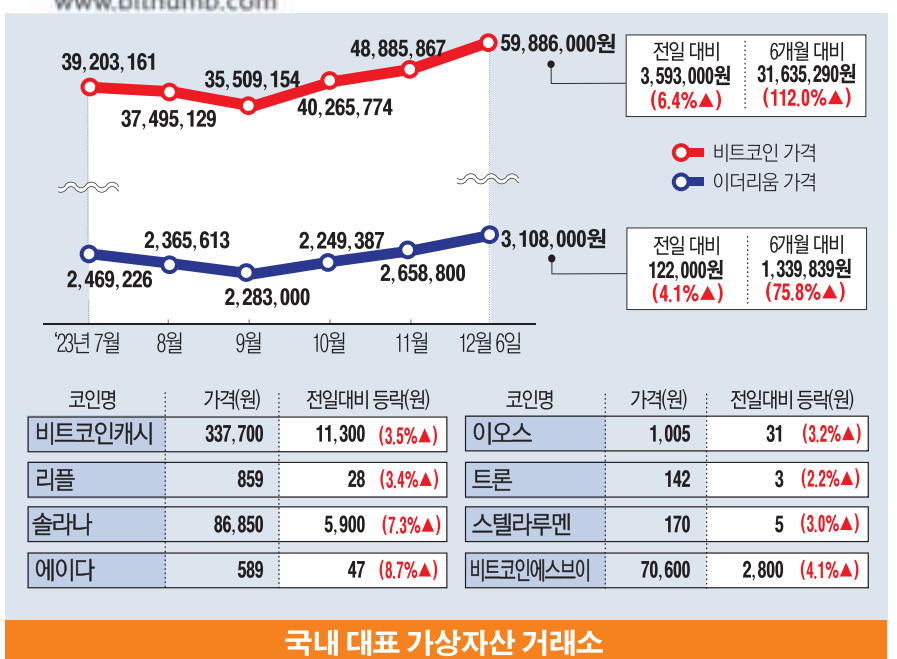
노베이션허브를 통해 UAE 가상자산 규제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최신 흐름에 발맞춰 최적의 중동 지역 사업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두바이 금융서비스청(DFSA)의 공인 암호화폐로 등록하기 위한 신청 절차도 진행 중이다. DFSA의 공인 암호화폐는 DIFC에 입주한 4900여 개 기관들과 개인투자자들 간 거래 시 사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공인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과 최근 추가된 리플(XRP), 톤(TON)까지 총 5개다.

이시은 기자 zion0304@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3년 12월 6일 17:00, KST)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열 양상… 또 사업 지연되나

재건축조합, 9일 임시총회

7월 이어 ‘희림 對 해안’ 경쟁

이번에도 ‘지침·법규위반’ 갈등

서울시서 다시 제동 가능성

일부 주민, 선정 중단 가처분

총회 무산…다툼 계속될 수도

역대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의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설계권을 두고 대결 중인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이하 희림건축)과 해안건축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잡음이 나오는 데다 일부 주민이 법원에 설계사 선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한 상태기 때문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설계사 재선정 총회가 열리

지 않거나 진행되더라도 결과를 두고 다툼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달 9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설계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계사 선정도 7월 맞붙었던 희림건축과 해안건축이 양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앞선 공모당시 희림건축이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한 360%를 제시한 설계안을 내나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희림건축을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설계 공모 중단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압구정3구역 조합은 일정대로 총회를 열어 희림을 설계업체로 선정했고, 이후 서울시가 희림건축의 설계업체 선정이 공식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재공모를 진행하게 됐다.

외나무다리에서 다시 만난 양측은 이번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도. 사진제공 서울시

에도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첫 설계 공모 때는 해안건축이 희림의 설계안을 문제 삼았지만, 이번엔 희림건축이 해안건축의 설계 공모 지침과 법규 위반을 지적하며 갈등을 빚는 양상이다.

희림건축은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 해안건축이 준주거용지 도로 선형을 변경하는 등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고, 주택공급 가구 수도 신통기획 기준인 5800가구보다 1305가구(22.5%) 부족해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출해 건축 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양측의 경쟁이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 신통기획에서 벗어난 편법 제안이 오갈 경우 서울시가 다시 한번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업계 안팎에선 과열된 경쟁이 조합원들을 현혹하는 설계안 제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한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같은 면적에 100가구를 설계한 A사와 200가구를 설계한 B사가 있다면 조합원들은 B사를 선택한다. 현실 가능성을 떠나 분담금은 줄고 이익은 많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무리한 설계안으로 설계권을 따내더라도 서울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 기간 연장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

나는 등 여파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는 설계 공모 지침 위반 등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강동경찰서가 희림건축을 무혐의 처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 징계 절차는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주도 원칙을 준수해 설계 공모 지침을 어기는 등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을 때만 개입할 것”이라며 “7월 이후에는 관련해서 문제가 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희림건축에 대한 서울시의 징계 절차는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수도 있다. 압구정3구역 주민 일부는 현 조합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설계사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예정대로 총회를 열고 설계사 선정 안건을 올리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한진리 기자 truth@

“소형주택 활성화 위해 주택 수에서 오피스텔 제외해야”

주산연, 국회 토론회서 지적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세 감면

취득세율 주택수준으로 인하를”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청년과 노인을 중심으로 1~2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소형주택 공급이 줄고 있어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청년 등 독신 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1인 가구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 이후 연평균 14.1% 감소했고 특히 올해 9월 말까지 다가구·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은 작년 동기보다 60.1%나 줄었다”며 “내년 하반기 금리 하락과 경기회복으로 소형주택 위주의 주택가격, 임대료 급상승이 나타나면 1~2인 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주산연은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환급되고 주택은 면제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환급·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도 기존 4.6%에서 주택과 같은 1~3%로 내리고 60㎡ 이하 소형 오피스텔 보유자가 주택을 매수할 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도 내놔다. 주택 보유자가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을 추가로 소유하게 될 때도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 이하 가구와 가구주가 60세 이상 노인이라면 오피스텔을 2가구 보유해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보규 기자 jbk@

HUG 법정자본금 10조로… 자기자본 90배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주택도시보증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권영세·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김병욱·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보증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소위를 통과한 주택도시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따르면 HUG의 보증잔액 한도는 2027년 3월 31일까지 현재 자기자본 70배 보증에서 자기자본의 90배로 확대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조 원에

서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HUG 법정자본금은 2015년 5조 원으로 설정된 이후 8년간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향후 정부 출자 이행은 물론 전세사기, PF시장 침체 등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사고율 급등에 HUG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보증공급 여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HUG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이를 위해 다른 기관과 연계된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이 급격히 증가한 데다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보증사고 역시 크게 늘어난 만큼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안전한 공사 보증이

정영민 기자 oin@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후가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광고 문의 (02) 799-6727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 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 바로가기

‘빛 좋은’ 상생금융 역차별… 보금자리론 高신용자의 눈물

취약차주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중銀 신용등급 상관없이 면제

정책금융은 5등급 이하만 혜택

주금공 “수수료 年0.9%로 낮아”

#이사를 앞둔 회사원 A 씨는 현재 보유 중인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려고 알아보다가 금융권이 12월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보통 3년이 지나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A 씨는 대출 받은지 2년가량 돼 중도수수료가 발생했다. A 씨는 이번 기회에 수수료 없이 주담대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에 그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1억5000만 원)의 중도상환을 신청했지만, 신용등급이 높아 약 30만 원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했다. 콜센터에 문의하니 신용등급이 높은 A 씨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상생금융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상품	주담대, 신용대출	보금자리론
대상	전 차주	신용등급 5등급 이하
금리	면제	면제(신용등급 5등급 이상은 0.9%)
기간	12월 한달 간 전 차주, 2025년 1월까지의 취약차주(신용등급 5등급 이하)	2025년 1월까지



답이 돌아왔다.

정책금융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차주에 한해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갑질’, ‘종노릇’ 등 비판을 받은 은행권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내놓은 정책이다. 반면, 주금공 보금자리론 차주의 경우 취약차주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매월 성실히 이자를 납부한 고신용 차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금공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는 고신용 차주는 전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금공 콜센터는 보금자리론 차주들의 경우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나이스신용평가사 기준 804점 이하) 취약차주만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달 한 달간 진행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만 해당한다. 이들 은행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전 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고정금리 연 1.4%, 변동금리 연 1.2%다. 내년부터 2025년 1월까지의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나선 것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긴급간담회를 갖고 상생금융안을 연내 내놓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금융인 주금공 보금자리론의 경우 취약차주에게만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해 ‘상생’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주담대 중 80% 이상이 정책금융을 이용하는 차주다. 정책금융 주담대를 이용하는 고신용 차주들이 혜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 5조9000억 원 중 정책자금 대출이 4조8000억 원이고,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1000억 원에 그쳤다. 전체 주담대 이용자 중 83%가 주금공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이 이달 한 달간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이유는 상생금융 차원”이라며 “정책금융 차주들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주금공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연 0.9% 수준으로 시중은행에 비해 낮다”며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 1월까지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범곤 기자 nova@



김주현(앞줄 왼쪽 세 번째) 금융위원장과 이복현(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금융위·금감원·보험회사CEO 간담회에 앞서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보험 근간은 상부상조” 사회적 책임 강조

보험사 CEO 만난 금융수장 ‘상생금융’ 또 촉구

내년 실손·자동차 보험료 조정 예상
보험사 “상생 공감… 세부방안 마련”

금융당국 수장들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상생금융을 또다시 당부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서민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만큼 내년 실손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 조정이 예상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당국·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보험계약자들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만큼 보험회사가 신뢰받는 동행자로서 계약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농협생

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및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참석해 보험사의 주요 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보험의 근간은 보험계약자 간 상부상조 정신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장기적인 신뢰에 있다”고 언급하며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보험상품개발, 자산부채관리, 판매전략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재무적 성과에만 치우쳐 상품이나 자산관리에 쏠리지 않도록 하고 장기적 신뢰 형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험상품 개발 지체와 대면 중심의 판매 채널 등을 언급하며 “국민 실생활의 위험을 적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혁신과 건전한 판매 채널 확충에

한층 더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현재 보험업계에서 자체적인 상생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보험사들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보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절판마케팅과 과도한 치료비 지급 등을 내세운 영업경쟁은 결국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미래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건전한 영업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보험업권의 상생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표하면서 보험업권 자체적인 협의체를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보험사 CEO들은 보험업계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건의사항도 제기했다. 서지연 기자 sjy@

캠코,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새출발기금’ 7조 육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액이 7조 원에 육박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자는 4

만3668명, 채무액은 6조921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1만4423명(채무원금 1조1140억 원)이 약정 체결했

으며 평균 원금감면율은 약 70%로 나타났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서도 1만2314명의 채무조정이 확정됐고, 이들의 채무액은 모두 7944억 원으로 평균 이자율 감면 폭은 약 4.5%포인트(p)로 집계됐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날개 달린 금값… ‘金테크’ 나서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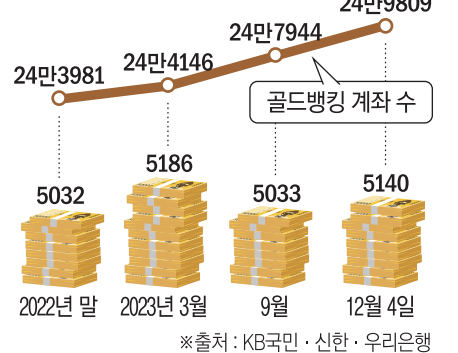
은행 ‘골드뱅크’ 25만 계좌 육박
안전자산 관심 커져… “원금손실 우려”

국내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금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다. 은행 예금으로 금 현물에 투자하는 ‘골드뱅크’ 가입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4일 기준 골드뱅크 계좌 수는 24만9809좌로, 작년 말(24만3981좌)보다 2.4%(5828좌) 늘었다. 골드뱅크 계좌 수는 △3월 24만4146좌 △6월 24만4475좌 △9월 24만7944좌 △12월(4일 기준) 24만9809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골드뱅크는 국제 금시세와 환율에 맞춰 계좌에 예치한 돈을 금으로 적립하는 상품이다.

골드뱅크 계좌 수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올해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국제 금값이 오르면서 국내 금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 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4일 장중 8만791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시중은행 골드뱅크 계좌 수·잔액
(단위 : 개, 억원)



KRX금시장이 2014년 3월 24일 거래를 시작한 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금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와 정책금리 인하 시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 투자에 매력적인 방향”이라며 “내년 하반기 금 가격 상단은 온스당 2150달러까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골드뱅크는 환율이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달러 흐름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값이 고점을 찍었다고 생각해 이를 현금화하는 가입자들도 많아졌다”며 “투자 상품인 만큼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카드·캐피탈사도 횡령·배임시 임직원 제재

여전업법·신탁법 개정안 발의

금융당국이 카드사나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나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카드사나 캐피탈사 등에서는 잇따라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고가 발생했지만, 여전법상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권이

없어 제재할 수 없었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발의한 개정안은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금감원의 금융위에 대한 개정 건의에 따라 신탁·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임직원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금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사들이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lly0403@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린이집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린이들의 내일을 담는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 53호 흥천시동 하나어린이집 (23년 9월말 기준 78개소 건립완료)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거수기 그만”…삼성·SK·현대차, 이사회 독립성 힘준다

“원래는 선임 절차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식을 정한 뒤 후보군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KB금융은 회장 후보군을 먼저 정하고 평가 기준과 방식을 정했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10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원장은 12일께 금융지주이사회 의장들과 만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방안엔 이사회 독립성·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 독립성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방증이다.

금융지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내 상장기업의 상당수는 여전히 기업 오너거나 최고경영자(CEO)의 입김에 의해 의사결정이 좌우된다.

‘이사회’를 바라보는 우려섞인 시선 속에 변화도 감지된다. 삼성·SK·현대차·LG그룹 등 대기업들이 이사회에 힘을 싣고 있다. ‘투명경영이 곧 경쟁력’이라는 그룹 총수들의 의지가 반영되면서 이사회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오너 그늘에 있는 거수기 이사회 = 6일 삼일PwC 거버넌스센터가 내놓은 ‘2023 이사회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이사회 독립성 관련 지표인 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의 분리 비율은 국내 상장사 가운데 3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상장사 사외이사 권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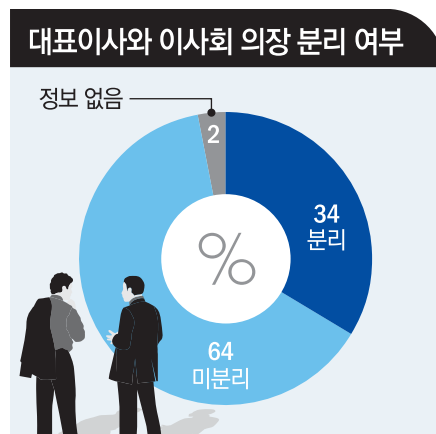
자산 1兆 이상 비금융 상장사 중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34%
이사회 독립적 감시 기능 낙제점

삼성 ‘선임 사외이사 제도’ 등
4대 기업 내부 감독기구 강화

은 자산 총액이 1조 원 이상인 267개 비금융 코스피 상장사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산 2조 원 이상은 142개, 1조 원 이상 2조 원 미만은 125개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이 분리된 회사라도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경우는 42%로 절반에 못 미쳤다. 오히려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가 의장을 맡는 경우가 46%로 더 높았다. 거버넌스센터는 “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이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독립적 감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ESG기준원이 제시한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해 공시할 것을 권고한다. 선임사외이사는 의장과 별도로 사외이사회 소집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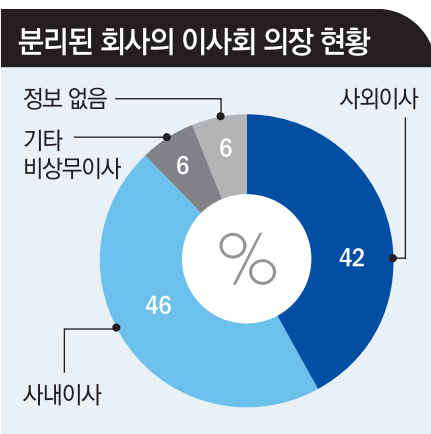
을 가지며 사외이사의 의견을 집약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가운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 회사는 단 5%였고, 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은 회사 가운데 선임사외이사를 둔 회사는 4곳에 그쳤다.

또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별도 회의가 권고되지만,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회의를 한 번이라도 열었다고 공시한 회사는 24%에 불과했다.

◇삼성·SK·LG 등 이사회 독립성 강화 움직임 =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어보겠다.”

지난해 10월 27일 계열사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서울 서초동 중앙



※출처 :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2023 이사회 트렌드 리포트’

지법에서 취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신뢰’를 강조했다.

취임 1년을 맞은 이 회장은 ‘투명경영’에 대한 의지를 실천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삼성은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을 위해 ‘선임(先任)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다”라는 이 회장의 의지에 따른 결정으로,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해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삼성 계열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게 이 회장의 복안이다.

삼성SDI와 삼성SDS는 이날 개최한 이사회에서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

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곳은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삼성그룹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변화도 감지된다.

SK그룹 이사회는 10월 ‘SK 디렉터스 서밋(Directors’ Summit) 2023’을 열고 내부 감사기구를 직접 감독하는 등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독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주주·투자자 등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이사회가 내부 감사기구를 감독하는 SK(주), SK이노베이션, SK네트웍스 등 주요 관계사는 그 기능을 강화하고 아직 도입하지 않은 관계사에 대해선 추가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올해 이사회 정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했다. 이사회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LG그룹도 LG이노텍, LG헬로비전 등에서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등 이사회 독립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장운근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회의를 통해 회사 이슈나 우려 사항을 비교적 자유롭게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다”며 “회의 빈도와 시간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회의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민 기자 si2020@

미래에셋證, 김미섭·허선호 각자대표 선임

2기 전문경영인 체제 본격 시작
금투업 전반 경험… 이해도 높아
최현만·조웅기·이만열 고문으로

미래에셋증권이 김미섭·허선호 부회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본격적인 2기 전문경영인 체제를 시작했다.

미래에셋증권은 6일 임시주주총회 후 이사회를 열고 허선호 부회장을 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임기는 2025년 3월(제56기 정기주주총회)까지다. 또 신규 사내이사로 허선호 부회장과 전경남 사장을 추가 선임했다.

허선호 부회장은 현 WM사업부 대



김미섭(왼쪽)·허선호 미래에셋증권 각자 대표

표로서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관리 비즈니스 성장강화, 플랫폼 고도화로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 WM사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었다.

김미섭 부회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싱가포르·브라질 법인대표, 글로벌사업부문 대표, 대표이사를 역임하

였고, 홍콩, 인도 등 신규 지역 진출 및 해외법인 설립, 국내 최초 록셈부르크 SICAV 펀드 런칭, 글로벌(Global) X 인수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글로벌 금융투자 및 경영 전문가다.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IB, 자산관리 등 금융투자업 전반의 경험을 통해 높은 금융투자업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으며 글로벌 경영 마인드를 갖췄다”며 “각자 대표 이사체제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현만 전 회장과 조웅기 전 부회장, 이만열 전 사장은 그간 그룹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문으로 위촉됐다. 권태성 기자 tskwon@

부동산PF, 잇단 ‘부실 경고등’

저축銀 부동산PF 연체율 증가세
증권사 위험노출액 금융권 ‘최악’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경기 변동성 리스크가 크다고 본다. 은행업권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부동산 익스포저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위주로 신용리스크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김대현 S&P글로벌 아태지역 금융기관 신용평가 담당 상무)

국내외 신용평가 기관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잇달아 경고등을 켜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사업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수도권 알짜 부지 사업까지 칼바람이 몰아치면서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경기 부천시 이마트 중동점 부지를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는 부동산 PF 프로젝트는 10월 무산됐고, 청담동 프리마호텔 부지에 지어질 신축 아파트 ‘르피에드 청담’의 PF 만기는 가까스로 내년 5월까지 연장됐다.

김대현 S&P 상무는 6일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나이스신용평가 공동 주최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매크로(거시경제) 상황이 중요할 텐데 내년에도 금리가 가파르게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PF 부실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무디스도 부동산PF에 대해 우려했다. 손정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연구원은 지난달 미디어 브리핑에서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합산해 부동산 익스포저를 산출할 경우 전체 은행 대출의 40% 중반 정도에 달한다”고 밝혔

다. 그는 “낮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정부의 강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고려할 때 직접적인 리스크 수준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부동산 경기 약세가 장기화한다거나 지금의(주택가격) 회복세가 반전되는 경우에는 테일 리스크의 현실화 우려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은행 금융권의 부동산PF 연체율은 뛰고 있다.

저축은행 상위 5개사(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의 경영공시에 따르면 이들 회사의 부동산PF 연체율은 9월 말 기준 6.92%다. 지난해 동기(2.4%)보다 4.52%포인트 높아지면서 7% 턱밑을 찍었다. 증권사의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 부동산PF 위험노출액은 28조4000억원으로, 연체율은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17.28%에 달한다.

PF위험이 큰 금융사는 신용리스크 경고장을 받아 들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대신에프앤아이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PF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관련 리스크가 커졌다며 무보증사채 등급전망을 기존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낮췄다. 신용등급은 A를 유지했다.

한국기업평가의 최근 다올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A(안정적)’에서 ‘A(부정적)’로 내렸다. 하이투자증권도 ‘A+(긍정적)’에서 ‘A+(안정적)’로 한 단계 내렸다. 부동산PF 시장 침체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신평사들은 엠캐피탈의 등급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엠캐피탈은 강남 프리마호텔 ‘르피에드 청담’ PF 사업에 준순위로 참여 중이다. 정희인 기자 hihello@

가격 변동폭 확대 이후 처음
케이엔에스 상장일 ‘파파블’

케이엔에스가 상장일 가격 변동폭 확대 제도 개선 이후 첫 ‘파파블’(공모가 대비 300% 상승)을 기록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케이엔에스는 상장 첫날 300% 오른 9만2000원에 장을 마쳤다. 시가총액은 3573억원을 기록했다.

6월 26일 신규 상장된 종목의 주가가 상장 첫날 공모가의 4배까지 오를 수 있게 제도를 변경한 이후 300%로 오른 것은 케이엔에스가 처음이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을 제외하고 지난 6월 26일 이후 상장한 종목 중 종전까지 첫날 상승 폭이 가장 컸던 종목은 필에너지로 상승률은 237.06%에 달했다. 박상민 기자 si2020@

현금곳간 채운 시총 10대 기업

3분기 말 유동비율 190.89%

지난해 말 대비 2.86%p 늘어

올해 3분기 대기업 단기채무 지급능력이 지난해 말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규모를 보여주는 유동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홀딩스, 현대자동차, 네이버, 기아, LG화학, 삼성SDI, 에코프로비엠)의 3분기 말 기준 유동비율은 190.89%로 지난해 말 188.02% 대비 2.86%포인트(p) 늘었다.

유동비율은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로, 기업이 보유한 지급능력을 보여

주는 지표다. 유동비율이 188%라는 것은 기업이 단기간에 갚아야 할 돈보다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1.88배 많다는 뜻이다.

시총 10대 기업의 유동부채는 지난해 말 260조1056억 원이었으나 올해 9월 말에는 256조6778억 원으로 줄었다. 현금 등이 포함된 유동자산은 489조400억 원에서 489조9687억 원으로 다소 늘었다.

유동비율이 가장 크게 개선된 곳은 14.85%p 늘어난 포스코홀딩스로, 지난해 말 대비 3분기 유동부채를 1조1278억 원 줄이고 유동자산을 9596억 원 늘렸다.

LG화학은 유동부채를 4096억 원 줄이고, 유동자산을 9736억 원 늘려 유동비율이 10.67%p 상승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알리에 더는 짝퉁 없다… 100억 투자해 韓기업 IP 보호”

‘가품 근절’ 고강도 대책 발표

원클릭신고·미스터리쇼퍼 도입
가품 따지지 않고 100% 환불
AI 기반 가품 판별 시스템 구축
IP침해면 권리자 소송 지원할것

중국직접구매(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향후 3년 간 100억 원을 투자해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IP) 보호에 나선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품 판매로 질타를 받았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 투자 외에도 판매자 페널티, 원클릭 신고제, 미스터리 쇼퍼 도입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놔다.

알리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P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인 ‘프로젝트 클린(Project Klean)’을 발표했다. 향후 3년 간 100억 원을 투자해 한국 기업의 IP와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프로젝트 클린은 셀러 검증·규제 강화 등을 비롯해 한국 맞춤형 알고리즘 운영, 100% 환불 등 소비자 품질보증 서비스, 원클릭 신고제·미스터리 쇼퍼 도입,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지식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어 전용 IP 보호 포털 IPP(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론칭 등이 포함됐다. 이는 현재 알리가 시행하고 있는 무관용 원칙 기반 빅데이터 필터링 제도에서 더 강화된 정책이다. 그간 알리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판매자가 제품을 올릴 때부터 가품인지 확인하고 IP 침해 상품을 1차적으로 필터링 해왔다. 레이 장(Ray Zhang) 알리 한국 대표는 “한국 소비자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IP 침해 상품 관

리는 매우 역동적이고 지속돼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알리는 판매자가 브랜드 판매 허가를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검증한 뒤 이후 인공지능(AI) 기반 알고리즘을 적용한 가품 판별 시스템을 활용한다. 판매자가 가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페널티도 도입한다.

알리에 따르면 최근 두 달 동안 사라진 가품 의심 상품은 약 97만7151개다. 이

과정을 통해 1193개의 상품이 문을 닫고, 7550개 한국 브랜드가 보호받았다는 게 알리의 주장이다. 특히 알리는 원클릭 신고제, 100% 환불제도 등 소비자 품질 보증 서비스를 강화한다. 구매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될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없이 100% 환불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알리는 제3자와 협력해 미스터리 쇼퍼 전담팀도 꾸린다.

장 대표는 “미스터리 쇼퍼 전담팀은 무작위 검사를 통해서 가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검사할 예정”이라며 “가품이라고 판명이 된 그 즉시, 위반 상품은 상품 리스트에서 삭제될 것이고 판매자 역시 페널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권리자들의 소송을 돕기 위해서 법률 시스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알리가 100억 투자와 함께 고강도 가품 근절 대책을 내놓은 건 최근 국정감사에서 가품 판매로 질타를 받은 탓이다. 당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브랜드 블랙야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30만 원에 판매하는 겨울 패딩 점퍼의 모조품이 알리에서 3만 원 수준에 판매됐고 심지어 국회의원 배지까지 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

롯데칠성 ‘크러시’ 매장 가보니

“빙산 닮은 맥주병부터 청량한 맛까지 힙해요”

“이런 힙한 맥주병은 처음 봐요. 모양은 물론 청량한 맛이 좋아 20대들한테 잘 통할 것 같아요.”

5일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포장마차 주점 ‘배터리88’에는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의 신제품 맥주 ‘크러시’를 맛보려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이곳에서 만난 대학생 이예진(24) 씨는 크러시 병을 만지작거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씨처럼 일단 크러시 외관에 대한 손님들의 반응은 호응일색이었다. 특히 이곳 매장 내외부는 크러시 대형 아트월로 꾸며져 외부 손님들도 “오! 크러시”하며 호감을 보였다.

롯데칠성은 배터리88과 협업해 3일부터 이곳을 ‘크러시 플래그십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65석 규모로, 평소 20~30대 소비자가 즐겨찾는 퓨전 포차다. 방문 당일엔 화요일임에도 가게 앞에 대기줄이 있을 정도였다.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크러시에 대한 젊은 층의 경험을 높이려는 롯데칠성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알코올 도수 4.5도의 라거 맥주인 크러시는 롯데칠성이 지난달 8일 클라우드 생드래프트 이후 약 3년 만에 내놓은 야심작이다. 제품명은 ‘반하다, ‘부수다’ 라는 뜻

롯데, 3년만에 내놓은 야심작 20~30대 소비자들 사로잡아

의 영단어 ‘Crush’에 롯데칠성음료의 맥주 브랜드 ‘클라우드’의 정체성을 담은 알파벳 ‘K’를 더했다. ‘낯은 관습을 부수고 새로움으로 매혹한다’는 뜻을 품었다.

롯데칠성은 타깃층을 기존 맥주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굳어지지 않은 Z세대로 삼았다. 20대 유동 인구 비율이 높은 홍대를 첫 플래그십 매장 장소로 낙점한 이유다. 맥주병 디자인도 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크리스탈 커팅 방식을 적용해 빙산을 형상화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를 뒀다. 매장에서 시원함과 청량함을 강조하는 크러시에 맞춰, 빙산 모형, 크리스탈 조명 등으로 꾸몄다. 여기에 크러시 모델 ‘에스파’ 카리나 포스터가 벽면 곳곳에 있어 콘서트장 느낌도 났다.

매장 외부 크러시 간판을 보고 방문했다는 석현진(23) 씨는 “크러시 맥주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됐다”면서 “맥주병 모양도 신선하고 청량한 맛이 만족스러워, 다음에 또 마셔볼 것 같다”고 했다. 매장에서는 수염 모양의 소품을 크러시 병에 부착하고 인증샷을 찍기 바빴다. 인증샷을 SNS에 게시하면 원하는 안주를 제공하는 이벤트에 참여한 것이다.

배터리88 관계자는 “대학교 기말고사 기간이 겹쳐 비수기고, 오늘은 평일인데도 자리가 꽉 차는 등 크러시 플래그십 매장으로 꾸민 뒤, 체감상 기존보다 20% 이상 손님이 늘어난 것 같다”고 했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강남 등 수도권 각지에서 문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대 크러시 플래그십 매장은 내년 2월 21일까지 운영한다.

문현호 기자 m2h@

이마트, 베트남 3호점 열었다… 노브랜드·K푸드 전면배치

노브랜드 면적 1호점보다 60% ↑ 국산 킹스베리 등 항공 직배송

이마트가 베트남 내 이마트 3호점을 개장한다. 특히 자체 브랜드(PL)인 ‘노브랜드(NoBrand)’를 비롯해 한국산 농산물과 K푸드를 전면배치해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설 전망이다.

이마트는 베트남 이마트 3호점인 판후익점을 7일 공식 개장한다. 6일 이마트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시 판후익 지역에 문을 여는 이마트 3호점은 크기는 6930㎡에 달한다. 호찌민에 있는 1호 고밥점 5950㎡, 2호 살라점 3966㎡

에 비해 커진 규모로, 지난해 11월 살라점이 문을 연 지 1년여 만에 선보이는 신규 매장이다.

3호점에서 늘어난 면적은 대부분 ‘한국산’ 상품을 확대하는데 활용된다. 한국산 상품의 핵심은 이마트 노브랜드로 매장 내 ‘숍인숍(Shop in Shop)’ 형태로 배치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1호점에는 노브랜드 제품이숍인숍 형태로 판매되지 않지만 2호점과 3호점은 노브랜드 코너가숍인숍 형태로 따로 구성돼 있어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면적이 비슷한 1호점과 3호점을 비교했을 때 3호점 노브랜드 매장 면적은 60% 커졌다”고 덧붙였다.

였다. 이마트는 노브랜드의 베트남 현지 인지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2호점에서 노브랜드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10%가 넘는다. 이마트는 베트남 진출한 현지 점포들의 노브랜드 매출이 지난해의 두 배가량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호점의 노브랜드 매출 비중 역시 같은숍인숍 방식을 채택한 2호점만큼 나오게 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이마트는 현지 파트너사인 타코 그룹과 함께 3호점을 베트남 대형마트 중 1등 점포로 키우면서 ‘베트남 이마트’를 동남아 시장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현재 현지 매출 1위 점포는 이마

트 1호점이 차지하고 있다. 이마트는 한국산 농산물과 K푸드를 공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농산 킹스베리, 상주사 인머스켓 등은 고가임에도 베트남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다는 게 이마트 측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항공 직배송을 이용해 한국산 과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매장 엘리 코너에서 이마트 피자과 김밥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미 현지 1호점에서는 하루 평균 김밥 약 500줄, 이마트 피자 약 300편이 판매되고 있다. 송만준 이마트 PL 글로벌 사업부장은 “현지 파트너사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동남아 시장 사업 확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해외 유명 카페 브랜드 ‘제2 스타벅스’ 노리지만…

팀홀튼·인텔리젠시아 등 국내 상륙 스타벅스 독보적…공략 쉽지 않을듯

‘블루보틀(Blue bottle)’에 이어 ‘팀홀튼(Tim Hortons)’, ‘인텔리젠시아(INTELLIGENTSIA)’ 등 해외 유명 카페 브랜드들이 앞다퉈 한국에 상륙하면서 커피업계가 초긴장 모드다. 해외 브랜드의 야심 찬 도전에도 한국 시장 정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글로벌 브랜드로 시작, 한국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스타벅스에 대한 소비자 충성도가 엄청나고 커피시장도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커피’로 불리는 팀홀튼은 이달 14일 서울 서강남구 논현동 신논현역 3번 출구 앞에 한국 첫 매장을 연다. 팀홀튼은 1994년

캐나다에서 시작해 전 세계 16개국에 5600개 매장을 운영 중인 브랜드다. 미국을 대표하는 카페 브랜드인 인텔리젠시아, ‘피츠커피(Peeet’s Coffee)’도 한국 진출을 준비 중이다. 인텔리젠시아는 미국 3대 최상급 품질의 커피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피츠커피는 블루보틀과 함께 미서부 지역 3대 커피로, 현재 한국에 상표를 출원하고 진출 준비에 나섰다. 이들 브랜드는 2019년 진출한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한 블루보틀의 성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블루보틀은 서울 성수동에 1호 매장을 낸 뒤 2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

그런데 블루보틀도 국내 독보적 1위 스타벅스 아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1999년 한국 진출 이후 현재 국내 카페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유지 중이다. 매출액은 2021년 2조3856억 원에 이

어 지난해에도 2조5939억 원을 기록해 2년 연속 ‘2조 클럽’ 타이틀을 달았다. 지난해 매출액은 국내 2위권 카페 브랜드로 알려진 투썸플레이스의 같은 기간 매출액 4300억 원과 비교하면 6배 차이가 난다.

스타벅스가 시장 1위인 것은 초기 고급화 전략에 각종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우선 ‘공간을 판매한다’는 경영 철학으로 고객에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고 이는 브랜드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전 매장을 직영점으로만 운영, 철저한 상권 분석을 통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만 입점했고 매장 상태와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한 것도 성공 요소로 꼽힌다. 여기에 회원제인 ‘스타벅스 리워드’를 운영하면서 프리퀀시 등 이벤트를 적극 활용해 충성 고객을 계속 늘렸다. 일정한 수의 음료를 사면 한정판 MD 상품을 제공하는



프리퀀시 이벤트는 행사 때마다 매번 품질 대란을 일으키며 화제다. 스타벅스 운영사인 SKC컴퍼니 관계자는 “올해 1월 리워드 회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매년 가입자 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ij42@

올 마약사범 2.2만명 ‘최대’… 3명 중 1명은 10~20대

작년보다 48% ↑ … 909kg 압수
밀수·밀매 공급사범도 7301명
수사팀, SNS유통 등 총력 단속
의료용 상습투약자도 구속수사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2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54%가량 늘었고,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도 대폭 증가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대검찰청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열고 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사범은 2만23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182명)보다 47.5% 증가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마약사범 중 34.6%(7754명)가 10~20대로 전년보다 53.8% 늘었다. 10대 마약사범만 해도 1174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압수량은 909.7kg로, 지난해 전체 마약류 압수량인 804.5kg을 넘어섰다.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7301명으로 지난해 3991명보다 82.9% 늘면서 단순 투약 사범보다 증가세가 뚜렷했다.

각 수사기관은 특수본 구성 이후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했다. ‘다크웹 전담팀’을 꾸린 검찰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SNS 등 유통사범 관련 집중 수사를 벌였고,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거주 중인 마약 밀수사범을 강제송환했다.

경찰은 합동단속추진단을 편성해 올해 3월~11월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1만5839명을 검거하고, 2379명을 구속했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1만434명)보다 51.8%, 구속은 전년(1439명)보다 65.3% 증가한 수치다.

해경도 밀반입 단속에 특화된 수사팀을 구성해 지난달 기준 447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마약범죄 검거인원(274명) 대비

63% 늘었고, 올해 구속한 숫자도 86명으로 100% 증가했다.

특수본은 이날 제3차 회의에서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만큼, 역량을 총결집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료용 마약류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한다.

아울러 대검찰청과 경찰청, 서울시는 이날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검찰은 서울지역 클럽·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와 해당 업소 정보를 공유하고, 서울시는 법규 위반 사항을 점검해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 조치에 나선다.

경찰은 서울시 공무원과 위생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마약단속 인력 및 경찰관 현장출입을 지원한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유흥시설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이현 기자 spes@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책임”

2심서 소비자 손 들어줘
법원 “1인당 7만원 배상”

법원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국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권순형)는 6일 국내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로서는 운영체제인 iOS의 업데이트가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비록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일부 성능을 제한하려면 충분한 설명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는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 애플은 고지 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인당 7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은 2017년 iOS를 업데이트하면서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논란이 심화하자 애플은 공식 성명을 통해 전원 꺼짐 방지를 위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국 등 해외 사용자들이 집단소송을 내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2018년 3월 9800여 명이 “애플은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병합 사건까지 포함하면 국내 원고는 6만2800여 명, 청구 금액은 126억 원으로 늘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아이폰의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만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소비자 중 7명만 항소했고, 이날 일부 승소했다.

김이현 기자 spes@



미세먼지에 휩싸인 도심

6일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강원영동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나쁨’ 수준을 보였다. 겨울철은 대기 순환이 불안정하고 강수량이 낮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 특히 이번 겨울은 중국의 경제 활동 회복 등으로 전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로 서울 종로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시의회 조례 교육감 거부하자
의장 직권 공포… “수십억 절세”
교육감은 조례 무효소송 제기

김현기 <사진>서울시의회의장이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노조 사무실의 폐교 이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6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 사무실을 서울 도심 빌딩에서 폐교가 된 서울 광진구 화양동 옛 화양초등학교 건물로 이전한 것을 환영한다”며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시민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잇단 폐교 등으로 교육청 내부에 여유 공간이 생기는 데도 세금 수억~수십억 원씩 들어 외부 민간 건물을 임차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심히 부적절해 의회가 나서게 됐다”며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와 9월 재의결했음에도 교육감이 끝내 공포를 거부해 의장이 직권 공포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



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노조 사무실을 종로구 교북동 모 빌딩에서 폐교된 화양초로 이전했다. 그동안 노조는 서울시교육청 지원을 받아 임차보증금 15억 원을 내고 도심 빌딩의 사무실을 이용해왔다. 이번 이전으로 보증금 15억 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회수됐다.

서울시의회는 5월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7월 초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노조에 지원하는 사무실의 크기를 최대 100㎡로 제한하고, 유류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어 조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조 관련 법률은 사용자가 노조 사무실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 조례도 노조 활동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상 당사자인 교육감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재량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해 위법이 아니라는 게 서울시의회의 판단이다.

전교조 이외 교육청 소속 다른 노조들도 폐교된 남은 공용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시민 세금을 절약하자는 의회 뜻에 공감해 사무실을 축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는 내년 4월 임차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 6억 원인 사무실을 보증금 3000만 원인 사무실로 전환할 계획이다. 대한민국교원조합 서울지부도 보증금 2억 원에서 3000만 원인 사무실로 옮길 예정이다.

이들 노조가 사용하던 보증금은 서울시 교육청 회계에 편입돼 아이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산하에는 교사 노조 이외에도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총 11개 노조가 설립돼 있다. 민주노총 학비노조는 용산구에 3억2000만 원의 세금지원을 받아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김 의장은 “전교조 이외에 다른 노조들도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청 내 유류 공간으로 이전해 세금을 아끼는 일에 협력해 달라”며 서울시교육청도 ‘노조 지원 조례’를 거부한 채 대법원 소송 등을 계속하지 말고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기에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6조 철근담합’ 7개 제강사 2심도 유죄

구속된 임원 일부 집유로 감형

6조 원대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임원 일부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전 봉강사업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의 벌금,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현대제철 함모 전 영업본부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세 명의 피고인은 모두 1심에서 유죄판결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간 구금돼 있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등 법인은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각 벌금 1억~2억 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 19명 또한 1심과 동일한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담합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고당심도 이를 타당하게 본다”면서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승진과 인사발령으로 담합에 가담하게 됐다”면서 “개인적인 이득이 있다고 하더라도(금전이 아닌) 전보, 승진 등 무형적 이득에 불과하고 가담하지 않으면 징계, 퇴사 등 불이익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꽃 기자 pgot@

“수능 ‘킬러문항’ 없다더니… 수학 6개 문항 교육과정 밖”

시민단체·국회의원 기자회견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기조로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영역에서 6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강득구·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수능 수학영역 46개 문항 중 6개 문항(13.04%)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수준을 벗어나 출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통과목 3개(14번·15번·22번) 문항과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28번, ‘기하’ 30번 등 총 6개 문항을 킬러문항으로 꼽았다.

킬러문항으로 판정한 이유로 먼저 교육과정 학습요소(용어·기호)를 벗어나 출

제된 문항(공통 15번, ‘미적분’ 28번)과,

“EBS 현장교사단 분석 근거 공개 제도 개선·문항 출제 법적규제를”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확률과 통계’ 30번, ‘기하’ 30번), 대학과정의 내용이 포함된 문항(공통 22번) 등을 내놴다. 이어 교육과정 교수 학습·평가방법·유의사항 미준수 문항(공통 14번·15번·22번, ‘미적분’ 28번)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특히 EBSi 가채점 정답률이 1.4%로 집계돼 ‘고난도 킬러’ 논란이 불거진 공통 22번 문항을 두고 최수일 사걱세 수학적신교육센터장은 “대학 과정에서 다루는 함수방식에 준하는 부등식을 제시했



강민정(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4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문항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다”며 “학생들은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는데 극도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올해 수능에서 교육과정 밖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 과정에서 별도의 킬러문항 검토단까지 신설해 ‘킬러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번 수능도

여전히 킬러문항이 출제됐다는 지적이다.

이들단체는 ‘킬러문항은 출제되지 않았다’는 EBS 현장교사단의 분석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걱세 측은 “EBS 수능 검토교사단은 이번 수능에 킬러문항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며 “EBS 강사들은 교육부의 이렇듯 예산을 전적으로 받아 쓰기 때문에 교

육부에 반하는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월 모의평가처럼 수능에서 출제된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과 출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은 킬러문항을 없애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수능 제도 개선과 입법을 제시했다.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현행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밖 문항을 시험에 출제해선 안 된다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에 수능을 포함하자는 주장이다.

한편, 중등교사노조도 지난달 17일부터 이틀간 수능 교과 교사(2278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이번 수능에 킬러 문항이 없어졌느냐’는 물음에 75.5%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는 응답은 24.5%에 그쳤다.

손현경 기자 son89@

서울대 나군 일반전형 1169명 선발… 연세대 가군 수능 100%



입시특특

주요 대학 정시전형

고려대 가군 ‘교과우수전형’ 신설
서강대 나군, 계열 교차지원 가능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8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수능 성적의 영향력이 매우 큰 정시모집은 전형 방법이 입시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별로 환산점수를 산출하는 수능 영역 반영비율이나 수능 외 전형요소 적용 유무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주요 대학별로 2024학년도 정시전형 특징을 보면, 서울대(나군)는 일반전형

1169명, 지역균형전형 156명, 정원 외 기회균형 농어촌 87명, 저소득 93명 등을 모집하고, 첨단학과 신설에 따라 첨단융합학부로 일반전형 50명, 지역균형전형 20명, 농어촌 5명, 저소득 5명을 각각 선발한다.

연세대(가군) 전형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학과는 수능 100%, 의예과 및 국제계열은 1단계(의예 2.5배수, 국제 3배수)가 수능 100%, 2단계는 1단계 성적 90%와 면접 10%로 전형한다. 정원 외 계약학과인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25명,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는 7명을 일반전형으로 선발한다.

고려대(가군)는 교과우수전형을 신설하여 수능 80과 교과(정량평가) 20으로 440명을 모집하고, 일반전형은 수능 100%로 1118명을 모집한다. 정원 외 계

약학과는 일반전형으로 반도체공학과 10명, 차세대통신학과 10명, 스마트모빌리티학부 20명을 선발하고, 의과대는 면접(결격여부 판단)이 실시된다.

서강대(나군) 전형방법은 인문, 자연 모두 수학 및 탐구 영역에서 과목 지정이 폐지되어 인문, 자연 모두 다른 계열로의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정원 외 계약학과인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일반전형 수능 100%로 10명을 모집한다.

성균관대(가·나·다군)는 다군 모집이 신설돼 반도체융합공학과 30명, 에너지학과 10명을 각각 모집한다. 계열별로 수능 반영비율이 변경돼 인문계열은 국어 35%, 수학 30%, 영어 10%, 탐구 25%, 자연계열은 국어 30%, 수학 35%, 영어 10%, 탐구 25%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통합 머리 맞댄 부산대-부산교대 학생들

글로벌대학 발전 소통 간담회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대학’에 선정된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통합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두 대학 학생들 간 간담회를 열고 소통에 나섰다.

6일 부산대와 부산교대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산대에서 두 대학 학생처와 총학생회 주관으로 학생대표자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소통 간담회는 홍창남 부산대 교육부총장의 글로벌대학 발전 정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시작으로, 부산대 사법법도서관 투어와 학생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차정인 부산대 총장과 박수자 부산교대 총장

도 함께 참석해 소통의 첫걸음을 내딛은 두 대학 학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간담회에는 부산대생 45명과 부산교대생 35명 등 총 80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분임토의를 통해 학생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계획안 마련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를 부산북부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열었다. 설명회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해 지방시대위원회, 지자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www.amaranth10.com | 대표번호 1688-5000

DOUZONE

비즈니스의 미래는 바로 지금부터

ERP, 그룹웨어, 문서관리 솔루션을 통합한
올인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의 탄생-

Amaranth 10



Amaranth 10 더 알아보기



새로운 차원의 융합-연결-공유를 통해
일하는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꿉니다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하나에 담아
어떤 업무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업무속도는 혁신적으로 빨라지고 데이터의
공유부터 관리까지 편리해집니다

솔루션 관련 비용 절감은 물론, 불필요하게
낭비되었던 업무시간도 절약됩니다

회계관리 | HR | Groupware(UC)
임직원 업무관리 | CRM | 웹오피스(문서 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람을 향한 더 나은 세상

모두가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작합니다



살고 싶은 집과 도시, 국민의 행복을 위한 8대 비전



고품질 주택
80만호 공급



주거복지
200만호 제공



스마트시티
250km² 조성



국가균형발전
지원 강화



온실가스
288만톤 감축



대국민 서비스
100% 디지털 전환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청렴고객만족·안전
최고등급 달성

이주호 펠로우, IEEE 통신 표준화 ‘최고 리더상’

〈전기전자공학자협회〉

삼성리서치 이통 표준화 선도
“이 펠로우, 3G~6G 기술발전
글로벌 통신분야 독보적 공적”
IEEE 회원 중 상위 0.1% 이내

이주호삼성리서치펠로우가글로벌 기술전문가 단체인 ‘IEEE’ (전기전자공학자협회)로부터 통신 표준화 분야의 최고 리더상을 받았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IEEE는 5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글로벌컴(Globecom) 2023’에서 IEEE 통신분과(ComSoc)의 ‘커리어 어워드 통신 표준화 최고 리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1963년 출범한 IEEE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분야의 세계 최대 전문가 단체다. 190여 개국 42만 7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IEEE ComSoc이 올해 처음 수여한 통신 표준화 분야 최고 리더상은 14명의 심사위원이 2개월에 걸친 심사를 통해 선정



이주호(가운데) 삼성리서치 펠로우가 5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글로벌컴 2023’ 학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통신 표준화 최고 리더상’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했다. 글로벌 통신 표준화 분야에서 독보적인 공적을 이룬 이주호 펠로우를 첫 번째 수상자로 결정했다. 이 펠로우는 3세대(3G)부터 6G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이동통신 기술 발전 및 표준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주호 펠로우는 3G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동통신 기술 선행연구 및 표준화를 주도해 왔다. 특히 2003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글로벌 이동통신 표준화 단체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의 RAN 1 워킹그룹의 부의장을 맡아 4G LTE 기술 표준화에 기여했으며, 2018년 IEEE 펠로우로 선정돼 국제적으로 공로를 인정받았다. IEEE 펠로

우는 IEEE 회원 중 상위 0.1% 이내에서 선정되는 최고 기술자 등급이다.

이 펠로우는 “IEEE ComSoc Career Awards 통신 표준화 최고 리더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5G뿐만 아니라 6G 기술 연구와 표준화 활동을 통해 이동통신 기술 발전에 공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EEE ComSoc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애니콜 신화’의 주역인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세계 최초의 컬러폰 개발에 기여한 신중균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각각 2004년과 2016년에 IEEE ComSoc의 ‘산업 리더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삼성리서치는 5G 국제표준을 제정한 세계 최대 이동통신 기술 표준 단체인 3GPP에서 의장 2명, 부의장 4명을 보유하고 있는 등 이동통신 기술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2020년 7월에는 ‘6G 백서’를 발행하고 2030년 6G 상용화 선점을 위한 기술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신한금융그룹은 5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에서 경찰청, 굿네이버스와 함께 제3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사진〉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은 2021년 7월 신한금융그룹과 경찰청이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말 개최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수천여원을 유사수신한 불법 다단계 조직, 불법 대부업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을 검거한 경찰관 5명과 신속한 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를 도운 시민 5명을 포함한 총 10명이 ‘서민경제 수호 영웅’으로 선정됐다.

김범근 기자 nova@·사진제공 신한금융

자이에스앤디,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고용공단과 가치일센터 협약



자이에스앤디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ESG 경영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다.

6일 자이에스앤디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 충무로에 있는 자이에스앤디 본사에서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및 안정을 위한 가치일센터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 가치일센터는 장애인 근로자가 가장 편한 장소에서 출퇴근, 근무가 가능한 업무용 공간이다. 공단이 채택 혹은 원격근무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자이에스앤디와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가치일센터 운영에 대한 다양한 협력 방안 추진에 합의했다. 전보규 기자 jbk@·사진제공 자이에스앤디

“한국문학 번역자 부족…현지 독자와 점점 늘려야”

번역가 김혜경·장클로드 드 크레센조(프랑스어)·오영아(일본어)·리아 요베니피(이탈리아어)가 ‘2023년 한국문학번역상’ 번역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6일 한국문학번역원은 “올해 번역대상은 2021~2022년 5개 언어권(프랑스어, 일본어, 아제르바이잔어, 이탈리아어, 크로아티아어)에서 출간된 총 130종의 번역서를 대상으로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부부번역가인 김혜경·장클로드느 이승우의 ‘강탕’을 프랑스어로 번역해 상을 받았다. ‘강탕’은 한중수, 핏, 타나엘 세 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흡수장은 3인칭, 짝수장은 1인칭으로 서술된 독특한 구조의 소설이다. 제일 교포 3세로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번역학을 공

‘한국문학번역상’ 시상식

김혜경·오영아·리아 요베니피 등
佛·日·伊 언어로 번역 4명 수상

부한 오영아는 조해진의 ‘단순한 진심’을 일본어로 번역해 상을 받았다. 이 소설은 해외입양 문제와 기지촌 여성의 존재를 다룬 작품이다. 한국외대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리아는 김혜진의 ‘딸에 대하여’를 이탈리아어로 번역해 상을 받았다. ‘딸에 대하여’는 레즈비언인 딸과 딸의 동성 연인과 한 집에 사는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프랑스와 일본, 이탈리아에서 한국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질문도 오갔다. 오영아는 “일본에서는 ‘82년생 김지영’이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페미니즘 문

학 작품들이 보급됐다”라며 “한국적인 페미니즘이 굉장한 힘이 있다. 그 이후로 SF, 쿼어 등 새로운 장르가 일본에서도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80~90년대엔 주로 역사적인 아픔과 갈등을 다룬 문학들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그건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아는 사람만 아는 분야”라며 “지금은 굉장히 대중화된 시장으로 (문학 작품의 저변이) 넓어졌다”고 부연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 도서에 대한 인기가 높다. 특히 손원평의 ‘아몬드’는 2020년 일본 서점대상 번역소설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또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은 지난해 기준 일본에서만 28만 부가 팔렸다.

장클로드 역시 “예전에는 한국의 역사와 정치, 경제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문학이 많이 출판됐다면, 요즘은 조금



왼쪽부터 장클로드 드 크레센조, 김혜경, 오영아, 리아 요베니피. 사진제공 한국문학번역원

쉽게 읽히는 책이 많이 출판되고 있다”라며 “특히 2010년 중반부터는 소위 말하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리아는 “5년 전만 해도 1년에 1~2권 정도 번역했다. 최근에는 1년에 5~6권이 넘게 제안받는다”라며 “지금은 번역자가 부족하다. 이럴 때 번역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젊은 번역가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북 페어 등을 열어 작가들이 현지 독자들을 직접 만나는 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석주 기자 ssp@

현대차 전기차 공장 시공식서 정주영 회장 육성 복원 이노션, 생성형 AI 전담 TF팀 신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광고 대행사 이노션이 ‘뉴 테크(New Tech)’를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이노션의 AI TF팀은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생성형 AI 활용 브랜드 콘텐츠 기획 및 플랫폼 구축에 특화돼 있다.

지난달 첫 번째 프로젝트로 현대차 울산공장 전기차 신공장 기공식에서 정주영 선대회장의 육성을 AI로 복원하며 화제를 모았다. 복원된 정 선대회장의 육성은 기공식 행사 오프닝 영상으로 활용됐다.

이노션은 정 선대회장의 육성 복원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수백여 가지의 생전 육성 데이터를 확보했다. 해당 콘텐츠에 가장 적합한 육성으로 학습시키고 말 습



이노션의 뉴테크 기반 기존 참여 프로젝트 이미지. 사진제공 이노션

관과 속도는 물론 감정 변화까지 적용하는 등 생성형 AI 육성 복원 기술로 100%에 가깝게 구현해 냈다는 평가다.

이노션 측은 “현대차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울산 공장 기공식 행사를 위해 제작한 선대회장 육성 복원 프로젝트는 현대차와 울산 공장의 지난 과거를 회고하고 브랜드의 비전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재 기자 2mj@

인사

◆롯데그룹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식품군 총괄대표 부회장 이영구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사장 정준호 △롯데지주 경영개선실장 사장 고수찬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 사장 고정욱 △롯데지알에스 대표이사 부사장 차우철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부사장 추광식 △롯데지주 사업지원실장 부사장 정호석 △롯데정보통신 대표이사 전무 고두영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겸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 전무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전무 이원직 △롯데헬스케어 대표이사 상무 우웅조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보임 △화학군 총괄대표 사장 이훈기 △롯데지주 ESG 경영혁신실장 부사장 노준형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 대표 부사장 박익진 △롯데물산 대표이사 부사장 장재훈 △코리아세븐 대표이사(내정) 전무 김홍철 △LC USA 대표이사(내정) 전무 김진엽 △씨텍 대표이사(내정) 전무 손태운 △롯데알미늄 대표이사 전무 최연수 △롯데에이썬 대표이사(내정) 전무 김소연 △부산롯데호텔 대표이사 상무 홍성준 △롯데건설 CM 사업본부 대표 상무 김진 △재단법인 롯데문화재단 대표 상무 김형태 ◇승진 △롯데월프드 △상무 김대원, 김덕범, 김준연, 조경운, 황성욱 △상무보 구자성, 김도형, 김재훈, 위세량, 유경, 이기훈, 이진수, 임석범 △롯데칠성음료 △전무 나한재 △

상무 오세록, 이종근, 진달래, 하용연 △상무보 임승석, 최준영 △롯데지알에스 △상무 이원택 △상무보 송진욱 △롯데네슬레코리아 △상무 이창환 △롯데중앙연구소 △상무 윤원주 △상무보 정원석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상무 김해라, 서용석, 이정연, 조석민 △상무보 김지수, 최용현, 최우제, 최형모, 김범창, 김중성, 이영노 △롯데쇼핑 마트사업부 △상무 강해원, 김진성, 조정욱 △상무보 류지호, 송양현, 윤창국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 △상무 이재훈, 추대식 △상무보 김대홍 △코리아세븐 △상무보 박찬호, 손상연, 이진형 △롯데홈쇼핑 △상무 송재희, 정윤상 △상무보 이도규, 조윤주 △롯데하이마트 △상무 박상운, 윤용오 △상무보 김창희, 박정환 △롯데템버스 △상무보 이대성 △롯데캐미칼 기초소재사업 △상무 박기섭, 김철중, 이병희, 정종식, 조진우 △상무보 김상훈, 김영현, 박정규, 이재균, 조정훈, 김익수, 김형주, 윤자중, 주세형 △롯데캐미칼 첨단소재사업 △전무 박진형 △상무 신승식, 신우철 △상무보 김재경, 박진석, 지준호 △롯데정밀화학 △상무 김상원 △상무보 박일행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상무보 김세용, 김훈 △롯데알미늄 △상무 손병삼 △상무보 김두섭 △호텔롯데 △상무 신인형, 이정주 △상무보 김현령, 안영삼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상무 이정민, 이준영 △상무보 김원식 △호텔롯데 롯데월드 △전무 권오상 △상무 고정락 △롯데건설 △전무 박영천 △상무 신만

수, 유재용, 장지영 △상무보 백승엽, 성화승, 이동진, 이동혁, 이재영, 임용정, 현세인, 홍종수 △롯데건설 CM사업본부 △상무보 류원상 △롯데렌탈 △상무 손명정, 신상훈 △상무보 안성민, 최현우 △롯데정보통신 △상무 박종남 △상무보 신현호, 오실목, 오혜영, 윤성준 △롯데글로벌로지스 △상무 정석기 △상무보 정진영 △롯데캐피탈 △상무 김두한 △상무보 김경래, 김남희, 최만호 △롯데물산 △상무 유재성 △상무보 이상훈 △대흥기획 △상무 양수경 △상무보 이광현 △롯데컬처웍스 △상무 장민호 △캐논코리아 △상무보 정근석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상무 조기영 △상무보 안종민 △롯데바이오로직스 △상무 하중수 △상무보 강주연 △롯데지주 △전무 김승욱, 주우현 △상무 김재권, 김종근, 백철수 △상무보 강규홍, 강병훈, 김석철, 김수년, 박현용, 정성운, 정용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광 △산업정책연구실장 홍성진 △경제금융연구실장 박선구 △신성장전략연구실장 김태준 △기획홍보팀장 최지은 △경영지원팀장 김성중

◆DL건설 △대표이사 박익신
◆DL이앤씨 ◇임원 전임 △주주사업본부장 박수윤 ◇신규 임원 선임 △김화영 △윤오중 △이상진 △정성령 △김경택 △전현철 △이준기 △김영남 △이종배
◆코녕정밀소재 ◇상무 승진 △한상진

김정례 칼럼



부산교대 교수·교육학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인 증원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1947년 시작된 조선변호사시험과 이어진 고등고시 사법과 그리고 1963년 시작된 사법시험으로 2017년까지 배출된 법조인은 총 2만766명이다. 그리고 2012년 이후 현행 변호사 시험으로 약 10년간 배출된 변호사만 약 2만 명이다. 정원의 큰 증가는 어김없이 신규부집권과 문민정부이후 정치적 결단(?)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국민 체감 법률서비스는 이처럼 폭발적 증가만큼 나아지지 않았으며, 서비스 수가(酬賈)와 접근성도 그만큼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사 수를 마냥 늘린다고 의료서비스가 개선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면 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지 의료 내부 사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의대 정원의 급격한 증가로 의학교육의 내실을 저해할 수 있다. 현행 의학교육 기반과 시설 현황을 면밀하게 현장 실사해야 하지만 교육 당국의 정원 심의는 상당 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캠퍼스로 인가된 의학교육이 서울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도 당국의 감독이 허술함을 보여 준다.

둘째, 의학교육 인력 확보 문제다.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만 동원하면 의학교육 문제가 해결된

다는 인식은 좋은 발상이 아니다. 우리나라 기초의학 인력은 매우 부족하다. 생화학,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약리학, 조직학 등의 기초의학 교육인력 확충이 의대 정원 증원의 선결과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전체 의료 수가는 의사 증원 이상으로 증가한다. 의료 수가 문제를 건강보험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은 곧 기하급수적인 재정 증가로 이어진다. 흑

의대증원 필요하지만 맹점도 봐야

지방 의학교육 기반 지금도 열악

수가 급증도 난제...다각적 모색을

자는 의사들의 사명감과 공적 책무성을 내세워 수가를 묶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허상에 불과하다. 전문의 자격 취득에 병역을 필해야 하는 남자의 경우 14~15년 소요되므로 의사 지망생에게 공적 의무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전체주의 발상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 자유 사회에서 의사들도 자기애에 기대야 한다(▶본지 2023년 11월 13일자 칼럼 참조).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허상에 가까

운 공적 가치를 내세워 공공의대 설립 운운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릇된 주장이다.

이러한 내적 사정에 더하여 정부의 추진 방식도 문제다. 당국은 병원(대학)의 요구를 중심으로 증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이는 편파적 방식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병원만이 의료 공급자가 아니다. 개별의사도 공급자다. 또한 병원과 의사만 놓고 보면 병원이 수요자이고 의사가 공급자다. 지난 달 22일 정부와 의사협회 간 의대 정원 논의가 10분 만에 파행된 이유는 병원과 다른 의사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서다.

결론적으로 앞서 살펴본 법조인 증가처럼 정치적 계기와 판단으로 의사 증원을 결정해선 안 된다. 시급한 현안인 의료 사각지대 해소 문제는 원천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이 유일한 답이 아니므로 지방병원 증충 및 의료인 지방 유입에 따른 각종 규제 철폐, 외국 의료인 진료의 한시적·제한적 허용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의대 정원 문제도 병원(대학) 측만 아니라 의사 측과도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높다고 평가받는 우리 의료체계를 급격한 증원정책으로 무너뜨려선 안 된다.

일본發 호스트클럽 주의보

일본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에는 요새 사건이 터지지 않는 날이 없다. 그 중심에는 호스트클럽들이 있다.

최근 여성 고객이 호스트를 칼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호스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속여 많은 돈을 바치게 했는데 배신했다고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은 외상을 겪기 위해 매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알고 보면 돈의 문제라기보다 여성들의 질투에서 비롯했다. 자신이 몸을 팔면 서까지 거액의 돈을 바친 호스트가 배신했다는 게 여성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였다.

신주쿠뿐만이 아니라 오사카의 유흥가에서도 호스트클럽과 관련이 있는 매춘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일본 경시청이 각 유흥가에 있는 호스트클럽을 대대적으로 순찰하고 길거리에서 서서 매춘을 하는 여성들을 적발하기 시작했다.

성인 연령 18세로 낮아지며 피해자 급증

이렇게 호스트클럽에 외상을 지고 매춘까지 나선 여성들이 일본에서 사회문제가 됐다. 한편, 당사자인 여성들이 스스로 호스트 클럽에 간 것이어서 자업자득이라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잇따른 호스트클럽 문제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부로서도 관계 부처가 한층 더 긴밀하게 연대하여 대책을 확실히 강구,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호스트클럽에 빠진 여성들은 “방관해 주었으면 한다”, “매춘을 해서라도 담당 호스트를 지원하고 싶다”라고 말한다. 많은 여성이 구제를 요구하지 않는 현 상황은 이 문제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최근 젊은 여성을 호스트클럽에 빠지게 만드는 조직적인 수법 실태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일본 현지 보도에 따르면 호스트클럽 중에는 매뉴얼을 만들어 여성들을 마인드컨트롤 하는 수법을 마련한 곳이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18~20대 초반 여성을 목표로 삼아 속이기 쉬운 여성이라고 판단이 서면 ‘유사 연애 수법’으로 여성들이 담당 호스트를 좋아하게 만들고 외상값이 많아지면 길거리 매춘을 유도해 조직적으로 매상을 올리는 가게가 많다는 설명이다.

시론

호사가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정치학



일본에서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젊은 여성의 피해가 급증했다. 이른바 ‘악덕 호스트클럽’에서 일했다는 전 호스트의 증언에 따르면 악덕 클럽들은 아예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여성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여성들은 호스트클럽의 찬란한 분위기에 매료된다고 한다. 사회적 경험이 적은 여성들은 마치 공주가 된 기분을 맛보게 해주는 반짝이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호스트와 지내는 시간이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극치로 느껴져 고액을 기꺼이 낸다고 한다.

충분히 세뇌했다고 생각하면 호스트들은 자신을 따르는 젊은 여성을 아는 유흥업소에 소개하거나 해외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도록 알선해 외상값을 회수한다.

주말에 한국서 원정 오는 경우도 있어

9월 신주쿠역과 신오쿠보역 사이에 있는 오쿠보 공원 주변에서 성매매 손님을 기다리는 젊은 여성들이 사복경찰관에 의해 35명이나 체포됐다. 그들 중 40%가 호스트클럽의 외상값을 갚기 위해 매춘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지금 일본의 도심에서 그렇게 서서 손님을 기다리는 스트리트 걸들이 흔하다. 일본어로 그녀들을 ‘타친보(たちんぼ)’라고 한다. ‘타친보’란 서서 기다리는 사람, 혹은 그런 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악덕 호스트클럽은 이렇게 온갖 수를 써서 여성들로부터 돈을 착취하려고 한다.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한국 여성도 주말을 이용해 호스트클럽을 방문하는 사람이 있고 외상이 늘어나 한국의 직장을 그만두고 일본에서 매춘을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다. 한국 여성들도 조심해야 한다.

이젠 내수 살리기에 집중할 때

경기 둔화가 지속돼온 우리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출이 올해 10월 전년 대비 13개월 만에 증가세(+5.1%)로 돌아서고, 지난달에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지난달 수출 실적은 질적으로도 좋다. 11월 수출액은 558억 달러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율은 7.8%로 작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95억 달러)이 12.9% 늘어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그간 반도체 수출 부진은 전체 수출 감소 지속의 최대 원인 중 하나였다. 수출 감소의 또 다른 주원인인 대(對)중국 수출도 크게 개선됐다.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지난달 114억 달러로 전년보다 0.2% 줄었지만 연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내년에는 수출 성장세가 본격화돼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3%(기존 전망치보다 +0.2%p)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기관들이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 중 가장 높다.

우리 경제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함께 내수 역시 살아나야 한다. 현재

노트북 너머

서병곤
정치경제부 기자

내수를 대표하는 소비는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10월 서비스업 생산은 0.9% 줄어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재화 측면의 소매판매도 0.8% 줄어 한 달 만에 플러스를 반납했다. 서비스생산 및 소매 판매가 모두 줄어든 것은 소비 전반이 위축된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은 내년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꼽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가 금융위기로 확산할 경우 내년 우리 경제의 2.0%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우리 수출이 체재의 늪에서 벗어난 만큼 정부로서는 이젠 내수 살리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물가 안정화 조치를 보다 적극 추진하고, 가계부채 확산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sbg1219@

이투데이, 말투데이

☆ 척예거 명언

“진정한 장벽은 공중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초음속 비행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경험에 있었다.”

제2차 대전 때 적 전투기 11.5대를 격추한 조종사다. 그는 세계 최초로 고도 1만3700m에서 수평 비행으로 마하 1을 넘는 데 성공했다. 고졸 출신인 그는 쌍안경을 능가하는 시력, 정밀한 조종능력을 갖춰 노력만으로 말단 정비병에서 미 공군의 준장까지 진급했다. 오늘은 그가 세상을 뜬 날. 1923~2020.

☆ 고사성어 / 여연지필(如椽之筆)

‘서까래처럼 커다란 붓(필력)’이라는 말. 다른 사람의 문장이나 서법을 칭찬할 때 쓰는 말이다. 진(晉)나라 서예가 왕순(王珣)은 3대가 서예가 집안이었다. 왕순은 스무 살 때 대사마(大司馬) 환운

(桓溫)의 주부(主簿)로 있었다. 모든 업무를 맡아 하던 그가 어떤 사람이 서까래처럼 커다란 붓을 받는다[珣夢人以大筆如椽與之] 꿈을 꾸었다. 잠에서 깬 왕순은 “대작(大作)을 맡게 될 모양이다”라고 했다. 그날 오전에 효무제(孝武帝)가 갑자기 사망해 조정의 애책(哀策)과 부고(訃告), 효무제의 시호 등을 쓰는 일이 모두 그에게 맡겨졌다. 출전 진서(晉書) 왕순전(王珣傳).

☆ 시사상식 / 스코빌지수(Scoville scale)

고추에 함유된 캡사이신 농도를 계량화하여 만든 지수로, 매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다. 미국의 화학자 윌버 스코빌이 개발했다. 스코빌 단위의 값이 높을수록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매운맛이 강하다. 2022년 현재 가장 높은 스코빌 지수를 가진 칠리 고추는 캐롤라이나 리퍼로 지수가 150만~220만 SHU이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상생금융 본질은 ‘금융소외 해소’

최근 대통령이 ‘종노릇’, ‘갑질’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은행의 서민금융 소홀을 질타하자 은행권은 상생금융을 통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사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은행권은 기업금융에 집중하면서도 서민을 상대로 한 금융도 활발히 하였다. 당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등은 원래 서민의 소액 대출과 주거 안정을 위한 국책은행이었고, 일반은행들도 각기 소액 대출 제도를 운용하며 일정 서민금융을 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국내 은행들은 대거 공격자금 투입과 더불어 사상 초유의 구조조정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 및 자본 투자가 활발해지고, 생존 본능이 강해지면서 국내 은행들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국내 은행들은 시장경제의 경영 원칙을 한층 강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연히 서민금융을 소홀히 하였다. 대신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확대하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부유층 시장을 전략적으로 집중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뚜렷해진 금융 양극화 현상 속에서 은행의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책당국도 ‘서민’은 금융 측면에서 ‘은행 등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할 정도로 은행의 순수 서민금융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번 대통령의 질타 이후 은행마다 상생기금을 설정해 현재 어려운 상황에 부딪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이자 감면 등 여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은행권 전체적으로 일정 규모의 상생기금이 효력을 보일 수 있지만 기금이 고갈되거나, 상황이 바뀌면 효과가 중단될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황재세는 은행권 수익의 상당한 비중을 지속해서 징수하여 지원하자는 것인데 이는 민간 은행의 경영 의지를 가로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더더욱 국내 은행권은 외국자본이 지배하고 있어 자칫 시장에서 돌이킬 수 없는 민감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박덕배의 금융의窓

국민대 겸임교수
국제통상학과



애초 문제의 본질은 은행권 수익이 많아서 그 수익 일부를 떼어 서민금융에 쓰자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심화하는 은행권으로부터의 금융소외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자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은행마다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을 작동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지금과 같이 신용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의 사람을 확실히 신용대출에서 배제한다는 것 또한 은행 경영 원칙에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최근 해외에서 적극적인 사후관리

로 서민금융이 높은 상환율을 기록하면서 수익성이 확인되자 서민 소액 대출을 자발적으로 취급하는 은행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BoA와 씨티뱅크 등 글로벌 초대형은행들도 그렇

다. 국내 은행도 서민이 강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미래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략적 차원에서도 순수 서민금융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의 노력도 배가되어야 한다. 국내 은행들이 경영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서민금융이 어렵게 된 것은 일종의 ‘시장실패’라 할 수 있다. 정책당국은 은행 건전성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재설계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해야 한다. 만일 은행 스스로 경영 원칙 차원에서 직접 취급하기 어렵다면 저축은행이나 우수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온렌딩(on-lending)대출 형식으로 서민금융을 확대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은행권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는 금융권 ‘만형’인 은행이 자발적으로 서민금융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은행들 수익성 치중, 서민대출 확대

외부압박에 상생기금 조성 ‘미봉책’

BoA·씨티銀 서민금융 확대 본받길

성인 확인되자 서민 소액 대출을 자발적으로 취급하는 은행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BoA와 씨티뱅크 등 글로벌 초대형은행들도 그렇

피부양자만 노력해서 건보 공간 지킬 수 있나

사설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란 보도가 어제 나왔다. 건보 공간은 피부양자 규모가 크고 작음에 따라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이 방면에서 대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피부양자는 약 1703만9000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141만 명)의 33.1%를 차지한다. 국내 건보 가입자 중 고용주와 반반씩 납부 부담을 나누는 직장가입자는 1959만4000명이고, 자기 몫을 100% 내는 지역가입자는 1477만7000명이다. 그 중간에 공단이 겨냥한 피부양자 집단이 자리한다. 결코 작지 않은 규모다. 공단은 앞서 지난해 9월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연간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낮췄다. 지난해 피부양자 수는 2021년 1809만 명에서 제법 줄었다.

건보재정은 급속한 고령화와 급여항목 확대로 2028년 고갈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건보 공간이 거덜 나고 있다면 이를 버려두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거듭 피부양자 명단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다. 다만 집단적 저항과 반발을 부를 사안인 만큼 사려 깊은 손질이 돼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피부양자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점차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전향적 검토의 여지가 많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

녀,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 지금의 기준이 타당한지 돌아볼 일이다. 대가족 시대의 잣대를 현재의 사회보험에 들이대면 ‘이득은 사유화, 비용은 사회화’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건보로 수입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일방 질주는 곤란하다는 점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공단의 ‘개선’은 그간 안졌던 부담을 새로 지게 되는 쪽에는 ‘개악’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건보 수입 증가만이 능사일 수 없다. 지출에서도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저출산·고령화가 내놓는 수많은 숙제 중의 하나는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 개연성이다. 정부는 이 문제의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 결코 되려 해서도 안 된다. 정부는 먼저 현행 제도를 통해 어디까지 관여하고 도울지 가능해야 한다. 급여·비급여를 나누는 선부터 명확히 그을 일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무거운 짐을 남겼다. 문재인 케어다. 2017년 당시 정부는 30조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비용에 대한 깊은 고민과 배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이후 확실한 처방이 나왔는지 알 길이 없다. 구령이 담 넘는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해마다 피부양자만 노력하는 땀질 처방으로 건보 공간을 지킬 수 있는지 묻게 된다.

새 국토장관 일성은 “규제완화”

“국토부에 오래 계셨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낫지 않을까요. 엉뚱하게 들쭉시는 일도 없을 것 같고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관한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국토부 장관의 정치인 같은 행보를 불안하게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기대다. 건설업계는 원희룡 장관에 대해 비판이나 칭찬, 어느 쪽이든 선뜻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상에 남는 정책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 대신 불필요한 문제를 키우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만이 컸다.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전수 조사가 대표적이다. ‘순살 아파트’ 사고여파로 인해 분위기가 상어 썰매 같아졌지만, 수십 년간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없었기에 전수조사로 인해 불안감이 확산했다. 온라인에선 ‘무량판 아파트 확인하는 방법’과 같은 게시물이 유행했다.

물론 건설업계의 더 큰 기대는 국토부 출신인 박 후보자의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에 있다. 박 후보자는 1983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들어온 뒤 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장, 주택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추진했고 재직 중 미국 조지워싱턴대 도시·지역계획학 석사를 거쳐 가천대에서 도시계획 전공으로 공학박사 학위도 받았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건설정책연구원장으로 있다가 박근혜 정부 후반기인 2016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임명됐다.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주택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3년 임기를 마쳤다.

LH 사장으로서 일하면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이후 악화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주거복지 강화를 무리 없이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

마감 후

전보규
부동산부처장



아 우수 공공기관장에 선정되기도 했다. 명확한 방향 제시와 합리적인 지시로 국토부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토부를 이끌게 된다면 이런 점을 바탕으로 현안들을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미 예고했다. 박 후보자는 정부과천청사예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완화의 입장에서 시장을 대하겠다”며 “다만 정부가 너무 시장에 깊게 개입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공을 들이겠다는 주택 공급 부족 우려 해소를 위한 3기 신도시 조기 착수, 재건축·재개발 가속,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확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LH 정상화의지도 밝혔다. 앞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는 우리 경제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도록 건설교통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박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다. 누구나 걱정 없이 단란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많이 공급할 정책을 내놓고 집행하면서 건설업계와 주택 수요자를 모두 웃음 짓게 할 수도, 어쩌면 정반대로 실망과 한숨만 안겨줄지도 모른다. 다만 국토부 본연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건설현장,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 높다는 점에서 전자가 될 것이라 는 희망을 품어보고 싶다.

jbk@

특허, 특!

‘상표 공존동의제’를 아시나요

상표 공존동의제도를 포함하는 상표법 개정안이 내년 5월 1일자로 시행된다. 상표 공존동의제도는 유사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선출원인 또는 선등록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표 공존동의제도의 도입으로 선권리자의 동의만 있다면 후출원이라도 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번거로운 절차가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 유사한 상표의 후출원의 등록이 쉬워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법이든 개정법이든 선권리자와의 협의가 선행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실제 필자의 한 고객은 유사한 선출원 상표로 인해 특허청으로부터 등록받을 수 없다는 통지서를 받은 후 선출원인과 등록 후 협의이전에 대한 협상을 시도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아무래도 조건 없는 협상은 쉽지 않기 때문에 선권리자와 후출원인 간의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

려운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사자 간의 협상이 가능한 경우라면 충분히 의미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유사한 상표로 거절이 되더라도 선권리자와의 다양한 형태의 협상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개별 후출원 상표에 대한 출원인별 경 절차와 등록 이후 권리이전 절차가 사라진 만큼 협상의 시작을 위한 장벽이 낮아진 덕분이다. 다만 이로 인해 상표 브로커 등장과 소모적인 협상 과정이 유도되는 등의 부작용도 일부 우려된다.

유사한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출원인은 선출원 상표가 거절, 취소,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선권리자에 대한 보상과 자신이 상표를 변경하는 경우의 비용을 비교하여 공존동의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태영 엘앤비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만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AMSUNG

겨울바람이 이렇게 찬데
저까지 바람을 보낼 순 없죠

조용하게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국내 유일 **저소음 무풍청정**

* 무풍(Still Air): 미국 냉공조학회(ASHRAE) 정의 기준, Cold Draft가 없는 0.15m/s 이하의 바람
* 20 dB 저소음 * 내용: 취침모드 동작 시 소음 20 dB * 자사 무향 무음실 측정 시험치이며,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도서관 수준의 소음 : 40 dB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기준)



BESPOKE 큐브™ Air

가전을 나답게.